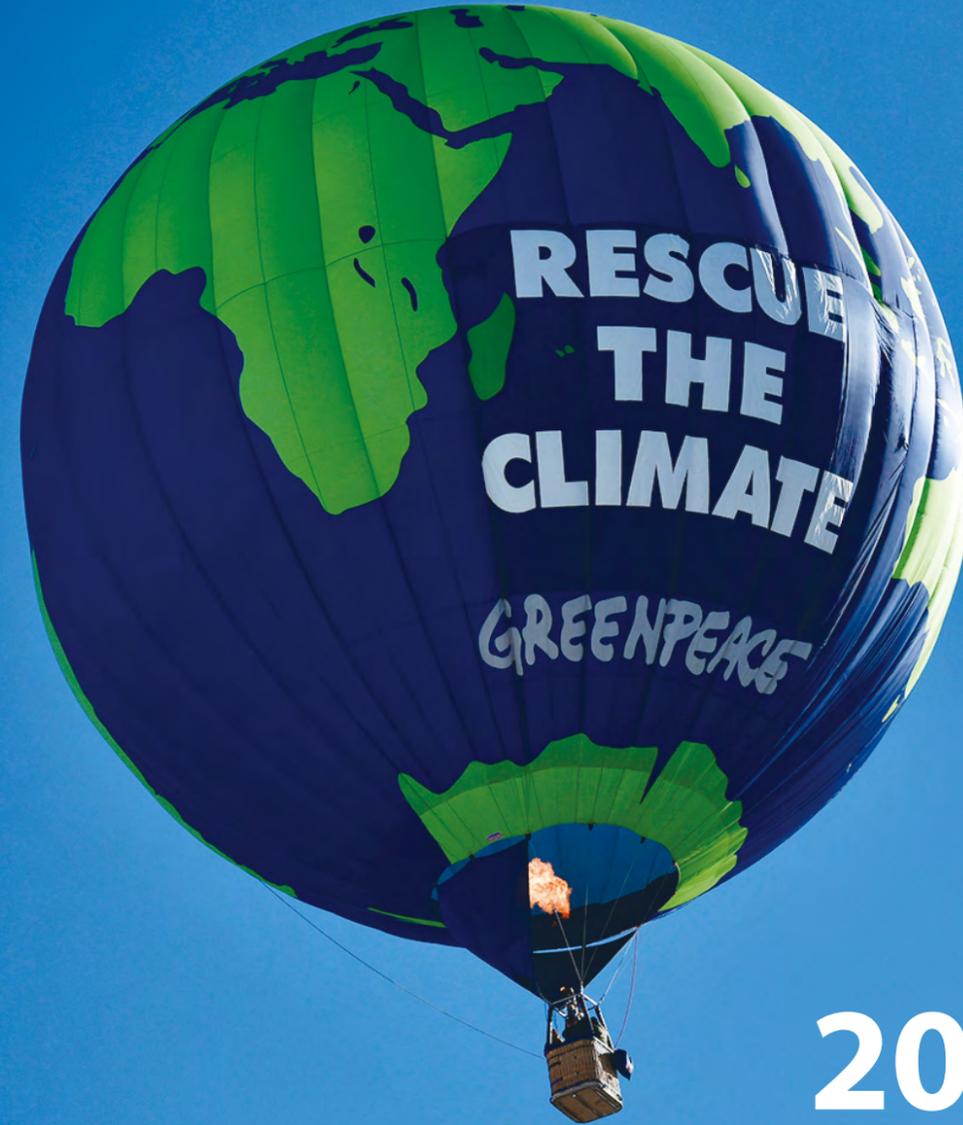


GREENPEACE



# 2018 ANNUAL REPORT

연차보고서

## Cover Story

핀란드 하늘에 떠오른 "기후를 구해주세요"라는 문구를 담은 열기구. 그린피스는 지구 전체를 위협하고 있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전 세계 사무소가 시민들과 힘을 합쳐 적극적으로 캠페인을 펼치고 있습니다.

표지 사진 © Jana Eriksson / Greenpeace

## 목 차

- 02 2018 희망의 이유
- 04 인사말
- 06 캠페인 주요 성과
- 14 주요 프로젝트
- 26 후원자 행사
- 28 후원자 스토리
- 30 인물 인터뷰
- 32 재정보고

### 그린피스 동아시아 지부

서울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257 청룡빌딩 6층(우 04322)

✉ supporter.kr@greenpeace.org

☎ +82 (2) 3144 1997

홍콩 10/F, Stelux House, 698 Prince Edward Road East, San Po Kong, Kowloon, Hong Kong

✉ donor.services.hk@greenpeace.org

☎ +852 2854 8300

베이징 Liangdian Creatie Park Room 201, Dongsishitiao 94, Dongcheng District, Beijing, China 100007

✉ greenpeace.cn@greenpeace.org

☎ +86 (0)10 6554 6931

타이베이 No.109, Sec. 1, Chongqing S. Rd., Zhongzheng District, Taipei City 10045, Taiwan

타이중 No.66, Section 1, Meichuan West Road, West District, Taichung City 40357, Taiwan

가오슝 No. 22, Chengde St, Sanmin District, Kaohsiung City, Taiwan 807 80756

✉ donor.services.tw@greenpeace.org

☎ +886 (0)2 2361 2351

### 2018 연차 보고서 통권 5호

발행일 2019년 6월 21일 발행처 재단법인 그린피스

전화 02)3144-1997 주소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257길 청룡빌딩 6층  
디자인 및 인쇄 (주)인디엔피 www.indnp.com

GREENPEACE

✉ sukr@greenpeace.org 🏠 www.greenpeace.org/korea

📘 facebook.com/greenpeacekorea 📺 @greenpeacekorea 📷 @greenpeacekorea

🔍 검색창에 그린피스 서울사무소를 검색하세요!



이 제작물의 표지는 FSC®인증 용지, 내지는 100% 재생용지로 제작되었으며, 콩기름 잉크로 인쇄되었습니다.



© Richard Robinson

2018년은 끔찍한 폭서와 태풍, 홍수, 산불 등 점점 더 늘어나는 지구 온난화의 영향을 목격한 한해였습니다. 북극의 얼음은 점점 더 빨리 녹고 있고, 멸종 위기의 동물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플라스틱 쓰레기는 쌓여만 갑니다. 전문가들은 기후재앙을 막기 위해서는 한시라도 빨리 대처에 나서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행동해야 합니다. 지금 변화하지 않으면 너무 늦어버리는 시점에 다다랐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환경에 관심을 갖고 미래 세대를 걱정하며, 무엇보다 변화를 위해 행동하는 바로 후원자님과 같은 시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구는 우리들의 하나뿐인 집입니다. 이 집을 지키기 위해서 전 세계 곳곳에서 시민들이 변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린피스와 함께 희망을 더 크게 퍼뜨려주세요. 함께라면, 우리는 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계 경제를 저탄소 에너지 시스템으로 전환할 수 있는 획기적인 기술력을 가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태양광, 풍력, 지열 등 다양한 기술이 매일같이 발전하고 대중화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재생가능에너지의 용량은 급상승하고, 전기 자동차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석탄과 석유의 시대에 작별을 고할 때가 된 것입니다.

'일회용(Single-use)'은 2018년 올해의 단어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만큼 환경 문제에 대한 대중들의 인식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와 기업들은 하나둘씩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아직은 부족하지만 긍정적인 변화의 신호입니다.

모든 긍정적인 변화의 중심이 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지구와 미래를 위해 목소리를 내고, 메시지를 퍼뜨리며, 행동하는 전 세계의 시민들이 있기에 우리는 계속해서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원전을 막기 위해 공동소송에 나선 시민들, 재생가능에너지 확대를 위해 모인 대학생들, 기후변화를 막아달라고 나선 청소년들까지. 이 모든 사람들이 그린피스 활동의 핵심이 됩니다.

2018년 초, 그린피스는 과학자들과 함께 남극을 방문해 잠수함을 타고 남극의 해양생태계 탐사에 나섰습니다. 과학자들은 남극해의 독특하고 희귀한 해양생물들을 발견했으며, 그린피스가 탐사에 나선 8곳 중 4곳이 취약한 해양생태계로 선정되어 특별 보호구역이 만들어지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변화는 우리의 마음속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인간의 행동 방식이 기후위기를 불러왔지만, 반대로 해결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의식적으로 줄여나가고 있으며, 비닐봉지 대신 에코백을 선택합니다. 건강은 물론 지구에도 이로운 채식 역시 건강한 생활 방식으로 관심을 얻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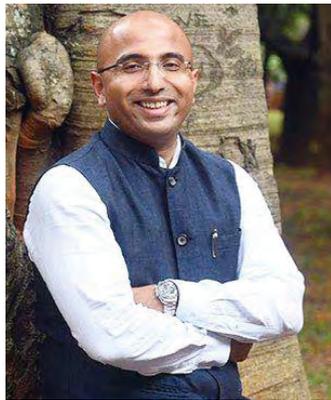
기후변화를 완화하기 위해 도시들 역시 변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친환경 재생가능에너지 공급을 확대하며, 지속 가능한 생활 방식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관리를 현대화하고, 녹지 공간을 확장하며, 에너지 효율적인 건물을 만듭니다. 또한 대중교통 역시 오염물질 저감 및 친환경 에너지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들은 세계 곳곳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산림 파괴를 멈추라는 시민들의 요구가 점점 커지면서 세계 곳곳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브라질 아마존의 산림 벌채는 대중의 압력으로 지난 15년간 70%가 줄었으며, 세계 최대 판유 기업 월마 역시 산림을 파괴하는 공급업체와의 거래를 중단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인도네시아의 열대우림에도 희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숲을 보호하고 재건하면 비용 대비 효율적인 탄소 저감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일러스트 박벽

## 후원자님 덕분에 결실을 맺은 한 해였습니다

산토시 페이 변호사, 그린피스 동아시아 이사회 의장



2018년은 특별한 해였습니다. 아직도 일부 사람들은 지구 온난화를 부정하기 바빴지만, 우리는 더욱 빈번해지고 더욱 과격해진 이상 기후 현상을 목격하고 경험한 증인들과 함께 기후변화는 심각한 현실임을 세상에 알렸습니다. 수많은 난제와 도전에도 불구하고, 그린피스가 변함없이 행동을 통한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고 우리의 하나뿐인 지구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후원자님 덕분입니다.

동아시아는 전 세계의 미래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소중한 자연을 지키는데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는 국경을 넘어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전 지구적인 문제입니다. 따라서 지구 곳곳의 그린피스 사무소가 힘을 합쳐 환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린피스 동아시아 지부가 지역은 물론 글로벌 환경 문제에 대처하는 것은 물론 미래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강력한 지부로 성장한 것을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린피스는 글로벌 비정부기구로, 투명성을 지키고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사회가 기여하고자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사회는 동아시아 지부 사무총장을 임명하고 관리하며, 경영진과 협력하여 지역 사무소의 전략적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사회의 구성원은 그린피스의 자원봉사자와 활동가, 사무소의 직원들로 구성된 회원들이 임명합니다.

이사회는 동아시아 지부가 글로벌 행정 및 재무 관리 표준을 준수하도록 관리하고, 그린피스의 사명에 따라 조직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감시하고 격려합니다. 저는 동아시아 지부가 투명성과 책임을 주도적으로 이끄는 사무소 중 하나로 인정받고 있다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이렇게 훌륭하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후원자님과 같이 환경 문제를 위해 목소리를 내고 진정한 변화의 씨앗을 뿌려주신 여러분 덕분입니다. 저 역시 이 변화를 만드는 여정에 함께할 수 있어 영광입니다. 후원자님의 지속적인 후원과 지지는 우리에게 더 큰 동기를 부여해줍니다. 함께 하면 우리는 더욱 강해지며, 더 안전하고 건강한 미래를 만들 수 있다는 희망을 줍니다. 다시 한번 멋진 한 해를 함께 만들어주신 후원자님께 감사드리며, 더 오랜 시간 동안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그린피스입니다

프эй팡청 그린피스 동아시아 지부 사무총장



지난해 말, 혹시 그린피스의 전화를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후원자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생생한 의견을 직접 듣기 위해 직원들이 전화를 드렸는데, 운이 좋게도 저 역시 몇몇 후원자님들과 직접 대화를 나누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직접 얼굴을 마주하지는 못했지만, 후원자님들과 저희 사이에 흐르는 유대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최신 캠페인도 잘 알고 있다고 말씀해 주신 분들, 후원뿐 아니라 서명운동에도 여러 차례 참여해 주셨다는 분들, 시간이 촉박해 오래 통화할 수는 없었지만 “앞으로도 계속 응원할게요!”라고 말씀해 주신 분들. 후원자님의 한결같은 헌신은 캠페인을 펼칠 때마다 우리에게 든든한 지원군이 있음을 깨닫게 해 줍니다.

우리는 거대한 환경 위기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동아시아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지구 전체의 미래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 때문에 그린피스 동아시아 지부 사람들은 엄청난 압박과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한 우리는 매우 운이 좋은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이 중요한 시기에, 전 세계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는 지역에서 매우 의미 있는 무언가를 성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또한 이런 우리를 믿고 항상 변함없이 지지해 주시는 후원자님들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후원자님 덕분에 작년 그린피스 동아시아 지부는 삼성전자의 100% 재생가능에너지 전환 약속을 이끌어 냈고, 대만 정부가 새로운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계획을 포기하라고 설득할 수 있었습니다. 아프리카 바다에서 조사 작업을 벌여 중국 어선단의 불법 어업을 적발하고, 홍콩의 자연공원들을 지켜낼 수도 있었습니다.

이런 성공들은 우리에게 커다란 에너지를 줍니다. 더 감동적인 사실은, 이 모든 변화는 후원자님의 응원과 지지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지역의 환경 단체와 힘을 합친 덕분에 더 큰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를 위협하는 거대한 환경 문제들 앞에서, 시민들의 힘이 모이면 어떤 강력한 변화를 만들어내는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후원자님들의 지지와 신뢰를 받을 수 있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연차보고서는 작년 한 해 동안 그린피스 동아시아 지부의 모든 성과를 소개하고 소중한 후원금이 어떤 캠페인에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우리의 아름다운 지구를 함께 지켜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 Josef Edlén / Greenpeace



## 삼성전자, 100% 재생가능에너지 사용 선언

2020년 까지

미국·유럽·중국 전 사업장(제조공장, 빌딩, 사무실 포함)에서  
100% 재생가능에너지 사용

2018년 6월, 삼성전자가 미국과 유럽, 중국에서 제조공장을 포함한 전 사업장의 전력을 2020년까지 100% 재생가능에너지로 충당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처럼 커다란 변화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은 2017년부터 삼성전자에 100% 재생가능에너지 전환을 요구하는 그린피스의 캠페인에 힘을 실어주신 후원자님 덕분입니다.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시민들도 후원자님과 함께 캠페인에 동참해주셨습니다. 서울을 비롯해 뉴욕, 런던, 베를린, 대만 등 세계 각국 시민들과 함께 평화적 직접행동을 펼쳤으며, 북극곰 30여 마리가 삼성전자 서초 사옥을 방문해 재생가능에너지 전환을 요구하는 액션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6월, 삼성전자는 미국과 유럽, 중국에서 100% 재생가능에너지를 사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로부터 4개월 뒤, 삼성전자의 경쟁사인 SK하이닉스도 같은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이처럼 삼성전자가 재생가능에너지 사용을 확대하는 것은 IT업계가 화석연료에서 보다 빨리 벗어나는 데 큰 영향을 줄 것입니다. 삼성전자는 글로벌 IT기업들에 부품을 공급하는 것은 물론, 전 세계 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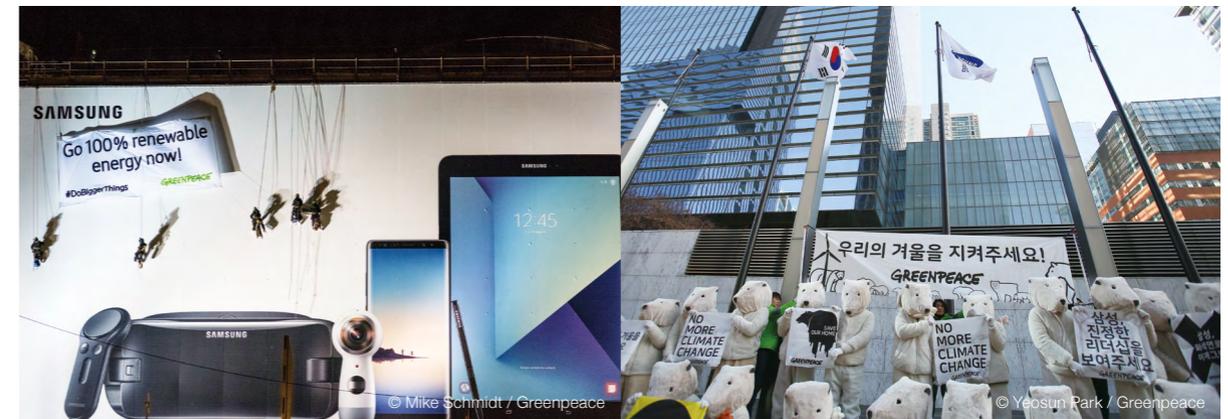
곳에 2,000개가 넘는 협력업체들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직은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국내에서는 발전원을 선택해 전기를 구매하는 환경이 조성되지 않았을뿐더러, 국내에서 생산되는 전기 중 재생가능에너지는 2.2%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린피스는 올 2월부터 기업들이 자유롭게 재생가능에너지 전력을 선택, 구매, 사용할 수 있는 기업 전력구매계약(PPA) 제도의 도입을 정부에 요구하는 캠페인을 새롭게 펼치고 있습니다.

*그린피스는 앞으로도 기업들이 유한한 지구 자원을 끊임없이 소모하는 방식, 화석연료에 의존해 생산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자원이 순환하고 재생가능에너지에 기반한 생산 체계를 구축할 때까지 꾸준히 캠페인을 펼칠 예정입니다. 우리가 함께라면, 어둡고 불안한 미래를 조금씩 밝고 건강하게 바꾸어갈 수 있습니다. 벽치고, 진취적이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끝까지 지지해주세요.*

- 이인성 캠페이너

## 2018 여러분과 함께 만든 변화

후원자님들의 변함없는 응원과 지원 덕분에 작년 한 해 동안 그린피스는 크고 작은 변화들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별한 의미를 가진 캠페인 성과들 7가지를 소개합니다. 세계 곳곳에서 지구의 미래를 위해 변화를 만든 시민들의 힘을 확인하세요!



© Mike Schmidt / Greenpeace

© Yeosun Park / Greenpeace



## 기후변화, 막을 수 있다는 희망의 이유

### 1.5°C를

지키기 위해 남은 시간 10년

지난 10월, 인천 송도에서 195개국 정부와 전 세계 과학자들이 모인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총회가 열렸습니다. IPCC는 기후변화와 관련된 과학적 정보를 제공하는 과학자들의 모임입니다. 이번 총회는 특히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는데, 바로 지구 온난화 1.5°C 특별보고서를 채택하는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이 특별보고서는 1.5°C와 2°C의 차이가 무엇이며 1.5°C 상승 억제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그린피스는 각국 정부들의 보고서 승인에 힘을 더하기 위해 IPCC 총회에 참관인 자격으로 참석했습니다. 정부들에 1.5°C 목표를 위해 다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뜻을 전하는 동시에, 1.5°C 특별보고서의 중요성을 미디어에 더 널리 퍼뜨렸습니다. 또한 IPCC 보고서 발표에 맞춰 이번 총회가 열린 송도 컨벤시아 지붕에 올라 "기후변화 희망이 있습니다. 함께하면 멈출 수 있습니다"라는 메시지가 적힌 배너를 펼치기도 했습니다.

10월 8일, 만장일치로 통과된 1.5°C 특별보고서의 요약본이 공개되었습니다. 핵심 내용은 2030년까지 탄소 배출을 절반으로 줄이고,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을 최대 85%까지 늘린다면 1.5°C 목표가 '달성 가능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10년 정도밖에 남은 시간이 없지만, 지금부터 행동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목표입니다.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그린피스의 캠페인은 앞으로도 꾸준히, 보다 적극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1.5°C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비현실적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인류를 포기하라고 말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정치적 무관심과 기업의 탐욕에 맞서는 인간의 독창성과 용기, 희망에 대한 끈을 놓지 않을 것입니다.*

- 카이사 코소넨, 그린피스 북유럽 선임 정책 담당 캠페이너



## 남극을 위한 희망의 움직임

### 2,700,000명

남극보호 캠페인에  
등참한 서명자

### 2,000건

남극 캠페인을  
소개한 언론 기사

2018년 1월, 그린피스의 환경감시선 아틱 선라이즈호는 남극 바다 탐사에 나섰습니다. 미지의 세계인 남극 바다에 사는 신기하고 아름다운 생물들을 기록하고, 이 지역을 보호해달라고 요구하기 위해 서입니다. 그리고 지난 7월, 전 세계 과학자들은 그린피스가 탐사한 지역 8곳 중 4곳을 특별 보호구역으로 만들자고 의견을 모았고, 이번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CAMLR) 회의에서 이 결정이 공식화되었습니다. 비록 남극해에 세계 최대 규모의 해양보호구역을 만드는 데는 실패했지만, 이 희귀하고 취약한 해양생태계를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린피스는 2017년부터 남극 보호구역 지정을 위해 전 세계 35개 사무소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캠페인을 진행해왔습니다. 그 결과 작년 3월에는 영국의 건강보조식품 브랜드 홀랜드앤바렛이 전 세계 매장에서 크릴 제품 판매 중지를 결정했습니다. 크릴은 대왕고래와 펭귄, 오징어 등 거의 모든 남극 동물들의 먹이입니다. 또한 7월에는

남극해에서 크릴을 잡아들이던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크릴잡이를 특정 지역과 시기에 중단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비록 한정적이지만 업계의 변화는 소중한 해양생태계를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는 남극의 진정한 빛과 어둠을 만났습니다. 땅 위에서는 눈으로 뒤덮인 섬 위에 펭귄들의 서식지가 펼쳐져 있고, 수백만 마리의 펭귄들이 새끼를 낳아 키웁니다. 거대한 고래가 표면을 맴돌며 마치 거대한 분홍색 구름처럼 보이는 크릴 새우 무리를 잡아먹습니다. 크릴은 이곳의 거의 모든 야생 동물들의 먹이기도 하죠. 물개와 코끼리 바다 물범은 물 위를 떠다니는 얼음 위에 편안히 드러누워 있고요. 그리고 동시에, 물속에서는 또 다른 세상이 어두운 활력 속에 펼쳐집니다.*

- 하비에르 바르뎀





## 인도네시아의 숲을 지켜내다

1,300,000명

인도네시아 숲을 위해 서명한 사람

인도네시아의 열대우림은 더 많은 팜유를 생산하기 위해 끊임없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그린피스는 수년간 인도네시아의 열대우림을 지키기 위해 팜유를 생산, 유통, 소비하는 글로벌 기업들을 상대로 캠페인을 펼쳐왔습니다.

2014년 수많은 기업들이 그린피스에 2020년까지 숲을 파괴하는 방식으로 생산된 팜유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으며, 그린피스는 약속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지속해서 감시해왔습니다. 하지만 슬프게도 산림파괴는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작년, 그린피스는 팜유 업계의 인도네시아 우림파괴 실태를 고발하는 보고서 '마지막 카운트다운'을 발표했습니다. 25개의 팜유 업체들이 3년 동안 서울시의 두 배가 넘는 크기의 숲을 파괴했으며, 세계에서 가장 큰 팜유 트레이더인 월마가 이 중 18곳과 거래하고 있었습니다. 이 보고서와 비디오는 전 세계 시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으며, 시민들은 월마에게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생산된 팜유를 사용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마침내 지난 12월, 월마는 모든 팜유 공급 업체들을 추적 관리하고 모니터링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월마가 전체 팜유 거래의 40%를 차지하는 지구상에서 가장 큰 규모의 팜유 거래 기업이니만큼, 이번 약속이 지켜진다면 소중한 숲을 지키는 것은 물론 업계 전체에도 커다란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약속을 지키지 않은 기업들 때문에 행동에 나선 것이 아닙니다. 단지 저는 나중에 파괴된 숲을 돌아보며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후회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바로 지금 산림파괴를 중단시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파괴는 계속될 것이고 지구 다른 지역에게도 퍼져나갈 테니까요. 저는 그런 세상은 원치 않습니다.*

- 학생 활동가, 와야 마웨루



© Dhemas Reviyanto / Greenpeace



© Michael Guilan Benites / Greenpeace



## 플라스틱 문제의 현실과 해결책

200건

2018년 국내 언론에 소개된 그린피스 '플라스틱 제로' 캠페인 뉴스

2018년, 그린피스의 플라스틱 캠페인은 좀 더 다양한 방향으로 진행되었습니다. 10월에는 인천대학교의 김승규 교수팀과 그린피스 동아시아 지부가 공동 진행한 연구를 바탕으로 바다의 플라스틱 오염과 생활 속 소비되는 소금 오염의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논문 '식용 소금에 함유된 미세 플라스틱의 국제적 양상'이 발표되어 커다란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 연구는 6개 대륙, 21개 국가에서 생산된 39개 브랜드의 소금을 분석했으며, 이 중 90% 이상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되었습니다. 특히 아시아, 플라스틱 오염이 심각한 지역에서 생산된 소금에서 보다 많은 미세 플라스틱이 나왔습니다. 조사 결과는 시민들과 전 세계 언론의 뜨거운 관심을 얻었으며, 일회용 플라스틱 문제에 대한 대중의 관심과 인식이 더욱 높아지는 데 일조했습니다.

한편, 작년 말에는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된 한국산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린피스 필리핀사무소와 협력해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산더미처럼 쌓인 채 방치되어 인근 주민들의 건강까지 위협하고 있는 5,100톤의 불법 플라스틱 쓰레기 현장을 취재해 각종 언론에 공개해 큰 주목을 받았으며, 수많은 시민들이 정부에 플라스틱 쓰레기 처리 문제를 해결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결국 이 플라스틱 쓰레기 중 1,300톤이 올해 초 한국으로 반환되었습니다. 그린피스는 근본적인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해 기업의 일회용 플라스틱 소비를 규제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민들도 플라스틱 감축을 위한 강력한 규제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민의 높은 인식 수준에 걸맞은 정책이 나와야 할 때입니다. 정부의 규제와 기업의 비즈니스 변화와 같은 시스템 개선을 통해 불필요한 플라스틱 소비를 줄여야 합니다.*

- 김미경 캠페이너



© Justin Hofman / Greenpeace



© Soojung Do / Greenpeace



## 우리의 세금, 기후정의에 써주세요!

# 19,815명

해외 석탄발전소 투자 중단 캠페인 서명자

지난 9월, 그린피스는 한국 정부의 해외 석탄발전소 투자 중단을 요구하는 '위험한 투자 feat. 우리 세금'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해외에서 우리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적 금융기관을 통해 막대한 규모의 자금을 석탄발전소 건설에 투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산업은행 등 세 곳의 공적 금융기관은 베트남, 인도네시아와 같은 개발도상국 석탄발전소 건설에 지난 10년 동안 약 11조 원 이상의 금융을 지원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개발도상국의 환경 규제가 낮다는 점을 악용해, 대기오염물질 저감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비용을 절감해 이득을 취했다는 점입니다. 그린피스는 연구조사를 통해 2013년부터 2017년 동안 인도네시아, 베트남의 석탄발전소 14곳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조기사망자가 연간 약 3천여 명에 이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린피스는 한국이 수출한 석탄화력발전소로 심각한 환경적, 건강적 피해를 당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짜레본 마을의 현실을 미디어에

알리고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한 공적 금융기관 3곳에 공개서한을 발송해 해외 석탄발전소 투자를 신속히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2만여 명의 시민들이 캠페인에 동참해 주셨으며, 국정감사에서도 해외 석탄발전소 문제가 논의됐습니다. 짜레본 1, 2, 3기 발전소의 운영, 건설에 참여하던 한국중부발전은 짜레본 3기 투자를 철회하고 재생가능에너지에 투자할 계획이라고도 밝혔습니다.

*우리나라는 국내 초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면서 해외로는 공적 금융을 통해 낙후된 기술의 석탄발전소를 지원하며 대기오염을 수출하고 있는데, 이웃 나라에 대기오염 영향을 많이 받는 우리나라가 그 고통과 피해를 확산시켜서 안 됩니다. 국외에서도 탈석탄 기조를 지켜, 전 세계적인 대기오염 저감에 앞장서야 합니다.*

- 그린피스 글로벌 대기오염 부서 손민우 캠페이너



## 석유 시대를 끝내기 위한 움직임

# 2,000,000명

아마존 산호초 보호 캠페인 전 세계 서명자

2년 전, 그린피스의 환경감시선 에스페란자는 아마존의 산호초 지대를 석유 시추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탐사에 나섰습니다. 그린피스의 잠수함은 아마존 산호초 지대의 신비로운 모습을 조사하고 촬영해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2백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아마존을 지켜달라는 서명에 동참해 주셨습니다. 다양한 평화적 직접행동이 전 세계 곳곳에서 진행됐습니다. 그 결과 지난 12월, 브라질 환경부는 석유 기업 토탈에게 허가했던 아마존 석유 시추 면허를 취소했습니다. 시민들의 목소리가 다시 한번 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기쁜 소식은 뉴질랜드에서도 전해졌습니다. 7년간의 캠페인 끝에, 뉴질랜드 정부가 연안에서의 새로운 해양 석유 및 가스 탐사를 금지한 것입니다. 수많은 석유 기업들이 심해에서 탄성파 공기총 발포 등 해양 포유류를 위협하며 탐사와 시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십만 명의 뉴질랜드의 시민들과 원주민, 환경단체들은 이에 크게

반발하여 지난 7년 동안 끊임없이 탄원하고 행진하며 행동에 나섰습니다. 저신다 아던 총리가 5만 명의 뉴질랜드 시민들이 서명한 그린피스의 청원서를 수락하면서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하기도 했습니다.

이 변화들은 단순히 아마존 산호초와 뉴질랜드의 바다만을 위한 것이 아니며, 석유 시대를 끝내고 재생가능에너지로의 전환을 원하는 전 세계 시민들의 목소리가 이루어 낸 미래를 위한 승리입니다.

*우리의 승리는 다른 석유 회사들에 만일 아마존 산호초 지대를 파괴하려 한다면 수백만 명의 시민들이 이를 막아낼 것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낼 것입니다. 그린피스는 아마존 산호초지대가 영원히 보호받을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 티아고 알메이다 그린피스 브라질 기후에너지 캠페이너



주요 프로젝트



# 그린피스 동아시아 지부 상세 프로젝트

2018년도 후원자님 덕분에 그린피스 서울사무소와 동아시아 지부는 다양한 캠페인을 펼칠 수 있었습니다. 새롭게 시작한 캠페인도 있고, 오랜 시간 꾸준히 진행해 온 캠페인이 멋진 성과를 내기도 했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도 늘어나는 등 다양한 시도로 가득한 한 해였습니다. 지난 한 해 서울사무소와 동아시아 지부에서 진행된 프로젝트들을 소개합니다.

© Jung Taekyong / Greenpeace

## 기후변화, 멈출 수 있다는 희망의 증거

### 전 세계 시민들의 움직임

하루가 다르게 진행되고 있는 기후변화는 이미 지구 전체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석탄, 석유 등 화석연료는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대기를 오염시키며 지구의 기후환경 자체를 바꾸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매년 석탄발전소에서 뿜어져 나오는 미세먼지로 1,100여 명이 조기 사망할 것으로 예측되며, 세계적으로는 2060년까지 600~900만 명의 사람들이 대기오염으로 사망할 것이라 예측됩니다. 게다가 가뭄, 홍수, 허리케인, 태풍, 폭염 등 갈수록 심화되는 극단적인 이상기후 현상으로 지난 20년간 무려 60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수면 상승 등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급격한 환경 변화와, 이에 따른 생태계와 농업의 변화는 더 거대한 사회적 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는 어느 한 기업이나 국가가 노력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는

작년은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한 크고 작은 움직임이 전 세계적으로 활발했던 한 해였습니다. 그린피스 서울사무소에서도 다양한 방향에서 기후변화 완화 및 에너지 전환을 위한 캠페인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세계 각국의 정상들도 지구 온난화 문제에 귀를 기울이고 조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작년 인천 송도에서 진행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에 전 세계의 이목이 모인 것도 당연합니다. IPCC는 기후변화와 관련된 과학적 정보를 제공하는 과학자들의 모임으로, 작년에는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해 각국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그 청사진을 담은 1.5°C 특별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IPCC를 앞두고 전 세계 시민들은 전 세계 지도자들이 지구와 미래 세대를 위해 올바른 선택을 할 것을 요구하며 행동에 나섰습니다. 한국에서도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해 화석연료와 작별할 것을 요구하는 '기후행진'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린피스를 비롯한 환경단체와 정당, 대학 동아리, 유럽연합대표부 등 수백여 명의 시민들이 서울 청계광장에 모여 '지구를 지키는 온도, 우리를 지키는 온도 1.5도'라고 적힌 슬로건을 들고 희망찬 행진에 나섰습니다.



© Jung Taekyong / Greenpeace



© Jaemin Byun / Greenpeace



© Soojung Do / Greenpeace



© Soejung Do / Greenpeace

### 재생가능에너지 캠퍼스가 필요해요!

우리의 미래 세대를 책임질 대학생들도 적극적인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전국거점국립대학교 대학생 연합인 '그린유스(Greenyouth)'와 대학생 신재생에너지 기자단은 그린피스와 함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RE제너레이션'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의 눈앞에 놓인 지구 온난화 문제를, 각자가 속한 대학교에서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그 답을 고민해 보고 찾아보는 기회였습니다. 2018년 교육용 전기(유치원, 초등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등 교육기관에 공급되는 전기)의 46.7%가 대학교에서 소비됐을 정도로 대학교들의 전기 사용량은 엄청납니다. 해외에서는 이미 많은 대학이 100% 재생가능에너지 캠퍼스를 선언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길입니다. 그린유스는 작년 8월부터 그린피스와 손잡고 전국거점국립대학교들이 먼저 에너지 전환에 앞장서 재생가능에너지 캠퍼스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는 활동을 진행했으며, 11월 한 달 동안 전국 대학을 돌

며 대학교들의 재생가능에너지 확대의 필요성을 알리는 'RE]드라이브'를 진행했습니다. 학생들은 캠퍼스에서 학생들과 시민들에게 재생가능에너지가 무엇인지, 왜 필요한지 직접 설명하고 4천여 명의 서명을 모았습니다. 12월 2일에는 유엔기후변화협약 제24차 당사국총회(COP24) 개막식에 앞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퍼포먼스를 진행했습니다. 광화문 광장 바닥에 가로세로 21m에 달하는 태양 모양의 현수막을 설치했는데, 이 현수막은 재생가능에너지 전환을 응원하는 대학생 및 시민 4천여 명의 메시지로 채워졌습니다. 이날 그린피스는 그린유스와 함께 '2018 대한민국 거점국립대학교 기후변화 리더십 현황 보고서'를 발표하고, 각 대학들의 재생가능에너지 전환 노력이 아직 미흡하다는 것을 알렸습니다. 자료 분석과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대학생들은 시민들의 서명과 함께 전국 거점국립대학교 총장협의회에 교내 재생가능에너지 시설을 늘리고, 에너지 전환에 앞장서 지역 사회의 모범이 되어 달라고 요구하는 서한을 전달했습니다.

### 우리 세금, 기후변화가 아닌 기후정의에 써주세요!

그린피스는 석탄발전과의 작별을 요구하는 캠페인을 꾸준히 펼쳐 왔는데, 지난 9월부터 해외 석탄발전에 대한 투자 중단을 강력히 촉구하는 캠페인을 새롭게 시작하며 각종 언론과 시민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린피스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13~2017년 기간 동안 건설되었거나 건설 중인 14개 석탄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로 매년 약 3천여 명의 조기 사망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들 14개 석탄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수은·이산화황·질소산화물·미세먼지 등의 오염물질은 연간 312,000톤에 이릅니다. 국내 635개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연간 배출량이 36만 톤인 것과 비교해 보면, 해외 발전소의 대기오염 문제가 더욱 심각함을 알 수 있습니다. 개발도상국의 환경규제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을 이용해, 오염물질 저감장치를 만들지 않고 싼값에 발전소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이 석탄발전소들은 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삶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한국 수출입은행이 약 2억3,800만 달러를 투자한 인도네시아 짜레본의 석탄발전소 근처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발전소가 지어진 뒤 환경이 심각하게 오염되어 경제적으로도 위기에 처했습

니다. 주된 수입원이던 염전이 오염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많은 주민들이 호흡기 질환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린피스 서울사무소는 "우리의 소중한 세금이 더 이상 해외 석탄 투자에 쓰이는 것을 당장 중단하라"고 요구하는 '위험한 투자 feat. 우리 세금'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그린피스는 청와대,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한 한국의 공적 금융기관 3곳에 공개서한을 발송하고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개발도상국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는 해외 석탄발전소 투자를 신속히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제48회 IPCC 총회 개막일에 맞춰 남산에 레이저빔을 사용해 해외 석탄발전 투자 중단을 요구하는 메시지를 전했으며, 광화문에 석탄발전소 모양의 구조물을 설치하고 '미세먼지 흡사탕'을 시민들에게 나눠주는 퍼포먼스를 진행했습니다. 이 캠페인은 국회에서도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큰 관심을 얻지 못했던 해외 석탄발전소 문제가 국정감사에서 수 차례 질의됐고, 짜레본 발전소의 운영과 건설에 참여하던 한국중부발전은 짜레본 3기 투자를 철회하고 재생가능에너지에 투자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밖에도 기쁜 소식이 이어졌습니다. 10월 2일 충청남도에서 탈석탄 정책을 결정하는데 이어, 사학연금과 공무원 연금이 탈석탄 투자를 선언한 것입니다.



© David Jaemin Byun / Greenpeace



© Chanklang Kanthong / Greenpeace



© Soojung Do / Greenpeace

## 시민들과 함께 만드는 '플라스틱 제로!'

### 우리의 식탁을 위협하는 플라스틱

이제 '미세 플라스틱'은 더 이상 낯선 단어가 아닙니다. 2016년 그린피스 서울사무소가 적극적으로 미세 플라스틱(마이크로비즈) 문제를 알리고 식약처의 규제를 요구하는 캠페인을 펼친 결과, 많은 시민들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함께 변화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덕분에 국내에서 씻어내는 화장품류에서 미세 플라스틱을 사용한 제품의 생산 및 판매가 전면 중단될 수 있었습니다.

그린피스는 미세 플라스틱이 우리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인천대학교의 김승규 교수팀과 함께 전 세계 소금에 포함된 미세 플라스틱을 조사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작년 10월 논문 〈식용 소금에 함유된 미세 플라스틱의 국제적 양상: 해양의 미세 플라스틱 오염 지표로서 해염(바닷소금)을 환경과학 분야 저명 국제 학술

서울사무소는 해양생태계를 플라스틱 쓰레기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물론, 인간의 건강과 지구 전체를 지키기 위해 플라스틱 제로 캠페인을 지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보다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동참을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는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지인 <Environmental Science & Technology>에 발표했습니다. 이 연구는 총 6개 대륙 21개 국가 및 지역에서 생산된 39개 브랜드의 소금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모든 소금에서 소금이 발견되었으며 특히 바닷소금의 경우 1kg당 발견된 미세 플라스틱의 최대 입자 수가 13,000여 개에 달했습니다. 또한 아시아에서 생산된 소금의 플라스틱 오염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미세 플라스틱을 가장 많이 함유한 10개 바닷소금 가운데 9개가 아시아에서 생산된 것이었습니다. 가장 오염도가 심각한 소금은 인도네시아의 제품이었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 바닷소금의 미세 플라스틱의 오염 정도는 소금 생산지 인근의 강에서 바다로 배출되는 플라스틱 쓰레기의 양, 혹은 인근 바닷물에서 조사한 플라스틱 오염도에 상응하는 패턴을 볼 수 있었습니다.

즉, 생산 지역의 플라스틱 오염이 심할수록 소금에서도 높은 수치의 미세 플라스틱이 발견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천일염에서도 1kg당 100~200여 개의 미세 플라스틱이 발견되었는데, 이는 아시아의 플라스틱 오염이 특히 심각하며, 한국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연구 결과는 전 세계 1천여 개 이상의 언론에 소개되어 큰 관심을 받았으며, 플라스틱 문제의 심각성을 다시 한 번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플라스틱 캠페인

2018년 서울사무소는 좀 더 많은 후원자님들, 시민들이 직접 캠페인에 동참하고 기여할 수 있도록 크고 작은 참여 활동 이벤트를 진행했습니다. 먼저 8월에는 녹색연합과의 공동 주최로 크리스 조던 감독의 다큐멘터리 <알바트로스> 상영회를 개최했습니다. 영화는 태평양의 미드웨이섬에서 8년간 촬영되었으며, 부모 새가 먹이로 착각하고 몰려다 준 플라스틱 쓰레기 때문에 섬을 떠나지 못하고 죽어가는 알바트로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크리스 조던 감독은 극장을 가득 메운 관객들에게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 지구적이며, 구조적이고, 집단적인 인류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9월에는 서울 홍대 걷고싶은거리 일대에서 플라스틱 클린업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행사는 '플라스틱 프리(Break free from plastic, BFFP)' 캠페인을 위해 전 세계 42개국에서 239회에 걸쳐 진행된

클린업 행사의 일환으로, 전 세계 1만여 명에 이르는 자원봉사자들이 18만 7천여 개의 플라스틱 쓰레기를 수거해 조사에 나섰습니다. BFFP는 그린피스를 포함해 전 세계 1,300여 개 단체가 함께 플라스틱 오염 해결을 위해 활동하는 사회운동입니다.

검사 결과, 수 천개의 브랜드가 바다와 수로를 오염시키는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재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최대 오염 기업은 코카콜라로 드러났습니다. 코카콜라 브랜드 로고가 찍힌 플라스틱 쓰레기는 전체 42개국 중 한국을 포함한 40개국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 밖에도 펄스코, 네슬레, 다농, 몬테리치 인터내셔널, P&G, 유니레버, 퍼페티 반 말레, 마르스, 콜게이트-팜올리브 순으로 가장 많은 쓰레기가 발견되었습니다. 이 조사 결과는 전 세계 플라스틱 오염을 악화시킨 데에는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재를 엄청난 규모로 끊임없이 찍어내는 기업의 책임이 막중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린피스는 위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의 건강과 환경을 위협하는 플라스틱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정부가 더욱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규제 법안을 만들고, 기업들의 비즈니스 모델 변화를 요구하는 캠페인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플라스틱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플라스틱없을지도', '불편의점' 등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오염 없는 미래를 함께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우리 모두를 위한 바다

## 남극 해양보호구역 지정을 위한 전 세계의 노력

그린피스는 작년 한 해 동안 남극 웨델해에 지구상에서 가장 큰 보호구역을 만들기 위한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남극은 수만 종의 생명체들의 보금자리이자 전체 해양생태계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구 온난화로 인해 생태계가 파괴되고, 남극 동물들의 주요 먹이인 크릴 어업이 나날이 확장되면서 또 다른 위협에 처했습니다.

그린피스는 남극이 처한 현실에 대해 보다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캠페인을 전 세계적으로 진행했습니다. 1월, 전 세계 유명 도시 곳곳을 방문한 펭귄들의 모습을 멋진 사진으로 소개하며 펭귄들이 처한 위기를 알린 '펭귄들의 행진' 포토 이벤트는 많은 언론의 관심을 얻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아틱 선라이즈호는 과학자들과 세계 최초로 웨델해 해저 탐사를 진행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잠수함을 타고 내려가 희귀 산호충, 해면동물 등 새로운 종을 찾

지구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바다. 수많은 해양 동물들의 서식지이자 10억 명 인구에게 먹거리를 제공하고, 탄소를 흡수해 기후변화를 막아주는 역할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 소중한 바다를 지키기 위해 그린피스는 더 많은 해양보호구역을 만들기 위한 캠페인을 펼치고 있습니다.

는 한편 남극 바다의 취약한 해양생태계를 생생하게 기록해 전 세계에 공개했습니다. 이어 보고서 <크릴 전쟁: 당신이 모르는 남극 바닷속 쟁탈전>을 발표하고, 기후변화와 인간의 이윤 추구 활동으로 파괴되어가는 남극의 현실을 알렸습니다.

4월 22일에는 지구의 날을 맞아 서울사무소 후원자님들과 함께 정계천 광장에서 남극 보호를 외치는 평화적 직접행동을 펼치고 캠페이너와의 만남 행사를 개최해 남극 문제는 물론 해양 플라스틱 오염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 남극 바다에 피어난 새로운 희망

안타깝게도 남극 웨델해 보호구역 지정은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지난 10월 열린 제37회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CAMLR)에서 한국을 포함한 25개 회원국이 2주에 걸쳐 논의했지만 중국과 러시아, 노르웨이의 반대로 만장일치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의 노력까지 완전히 무산된 것은 아닙니다. 전 세계 시민들과 후원자님의 목소리에 힘입어, 남극 보호 캠페인은 여러 뜻 깊은 성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먼저, 지난 3월 영국의 대형 건강 보조식품 브랜드인 홀랜드앤 바렛(Holland & Barrett)사가 전 세계 매장에서 크릴이 포함된 제품의 판매 중지를 결정했습니다. 또한 지난 7월에는 남극해에서 크릴을 잡아들이던 기업들이 특정 지역과 시기에 자발적으로 크릴잡이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비록 한정적인 선언이었지만, 이 특정 지역에 남극 반도 주변과 같이 펭귄과 고래 등의 동물들이 먹이를 찾고 산란하는 구역이 포함된 만큼 남극을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변화들은 올해 초 그린피스가 진행한 남극 해저 탐사 결과가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해저 탐사에서 희귀 생명체들이 발견되면서, 그린피스가 다녀온 탐사 지역 8곳 중 4곳이 '취약한 해양생태계'로 지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보호 조치가 시행되면 해당 구역의 1.85km 범위에서 저층 트롤과 연승 어업이 금지되며, 사전에 과학위원회에 미리 보고해야만 통행과 어업 등의 활동이 가능합니다. 또한 지난 6월 남극 지역에서 채취한 물과 눈 샘플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발견되었다는 그린피스의 보고서 <남극 지역의 미세 플라스틱과 유해 화학물질> 역시 남극 보호의 필요성을 시민들에게 알렸습니다.

## 북극 바다를 위한 50만 명의 목소리

그린피스는 남극뿐만 아니라 북극 보호를 위한 캠페인 역시 수년간 펼쳐오고 있습니다. 북극의 생태계를 빠른 속도로 파괴하고 있는 기

후변화를 막기 위한 캠페인을 전 세계 사무소에서 중점적으로 펼치는 것은 물론, 특히 북극 동물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석유 유출로 인한 오염의 위험을 안고 있는 북극 석유 시추를 막기 위한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그린피스 노르웨이사무소와 지역 환경단체 네이처앤유스(Nature & Youth)는 2016년부터 노르웨이 정부를 상대로 북극 석유 시추 허가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북극 석유 및 가스 시추권 확대가 현재대 및 미래 세대의 건강한 환경을 누릴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노르웨이 헌법 112조를 위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려 522,000명의 시민들이 서명에 동참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오슬로 지방 법원은 헌법적인 권리를 인정하면서도, 북극 석유 시추권을 무효화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이 판결은 법조계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았으며, 그린피스는 현재 항소를 진행 중입니다. 그린피스의 활동가들은 카약을 타고 노르웨이의 석유 기업 스타토일의 석유 시추 장비에 올라 재판 결과에 항의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평화적 직접행동을 진행했습니다.

과학자들은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해양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전체 바다의 30% 이상이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현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바다는 5%에 불과합니다. 그린피스는 앞으로도 전 세계 해양생태계를 보호하고 더 많은 바다를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더욱 힘차게 캠페인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이 모든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지지해 주신 후원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 지구와 미래를 위한 지속가능한 삶

많은 분들이 '생활 속에서 지구를 위해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것들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그린피스에 질문을 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으로, 2018년 그린피스는 매일매일 일상 속에서 작은 행동으로 지구를 위한 변화를 만들 수 있는 지속가능한 생활 방식에 대한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 채소 한 끼, 최소 한 끼

작년 7월, 그린피스 서울사무소는 '채소 한 끼, 최소 한 끼'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공장식 축산업에서 발생하는 건강, 환경 오염, 산림 파괴, 동물 복지, 탄소 배출 등의 다양한 문제들을 시민들과 공유하고, 우리의 건강은 물론 지구의 건강을 위해 채식 식단을 늘려갈 것을 권장하는 생활 방식 캠페인입니다.

육류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양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1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전 세계의 모든 자동차와 비행기, 기차 및 배 등 운송수단을 모두 합친 것과 맞먹는 엄청난 양입니다. 이대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2050년에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52%를 농축산업이 차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가축을 기르기 위해 지구 표면의 26%에 달하는 땅이 사용되며, 대규모 축산에서 생겨난 가축들의 배설물은 바다와 호수에 흘러 들어가 물속에 산소가 부족해 생물들이 살 수 없는 지역인 '데드존'을 빠른 속도로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햄, 소시지 등 가공육은 암을 유발하며, 가축을 사용할 때 사용되는 수많은 항생제는 우리의 건강까지 위협합니다.

그린피스는 '채소 한 끼, 최소 한 끼' 캠페인을 통해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육식'이 지구에 미치는 영향을 알리고, 보다 많은 시민들이 채식의 매력에 빠질 수 있도록 전 세계의 요리사들로부터 다양한 레시피를 수집해 채식 요리책을 만들었습니다. '채식'이라고 하면 샐러드만을 떠올리거나, '맛 없다' '까다롭다'는 인식을 바꾸고, 보다 즐겁게 채식 요리에 도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한국에서만 총 17명의 요리사님이 기꺼이 참여해 맛있는 채식 레시피를 공유해 주셨으며, 16,000여 명의 시민들이 캠페인에 동참해 주셨습니다. 그린피스 인스타그램에서 진행된 해시태그 이벤트에도 많은 분들이 참여해 직접 만든 채식 요리 사진을 올려주시며 채식 문화 알리기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 사는 대신 만들어 보세요! '불(不)편의점'

지난 12월에는 지속가능한 삶의 방식을 위한 다양한 생활 팁을 공유하고 소통하기 위해, 서울사무소에서는 후원자님들과 서포터님들을 초대해 '불(不)편의점'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동안 그린피스는 지구의 자원을 고갈시키고 환경을 파괴하는 것은 물론, 우리의 생활 습관조차 일회성으로 변화시키는 과잉소비 문화를 지양하고 지속가능한 삶의 방식을 알리는 캠페인을 진행해왔습니다. 각종 할인 행사와 선물 준비 등으로 소비량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연말에는 '바이낫띵데이(Buy nothing day, 아무것도 안 사는 날)'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으며, 물건을 사는 대신 직접 만들어보는 취지의 '메이크썸띵(Make SMTHNG)' 캠페인을 시민들의 성원과 함께 전 세계 곳곳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년 '메이크썸띵 워크'에는 전 세계 38개 국가에서 273개의 행사가 개최되었는데, 이번 '불편의점' 행사 역시 이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행사는 참가자들이 직접 가져온 옷과 물건을 교환하는 물물교환, 다회용 천연 랩 만들기, 장난감 수리, 크리스마스 카드 만들기, 실크스크린 프린트 등 다양한 코너들로 채워졌으며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100여 명이 넘는 분들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단순히 물건을 만들고 교환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환경과 지속가능한 삶의 방식에 관심이 있는 시민들이 만나 소통하고 각자의 소비 습관을 되돌아보며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자리였기에 더욱 의미 있는 행사였습니다. 불편의점 행사는 2019년에도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다 많은 분들이 지속가능한 삶에 관심을 가지고, 직접 고치고 만드는 즐거움을 만날 수 있도록 그린피스는 앞으로도 꾸준히 후원자님들이 참여하실 수 있는 오프라인 활동과 캠페인을 이어갈 것입니다.





© Tze Cai / Greenpeace



© Mofy Chen / Greenpeace



© Yan Tu / Greenpeace



© Patrick Cho / Greenpeace

## 동아시아 지부의 2018년 활동

### 녹색 도시 만들기

홍콩은 토지 사용 문제가 언제나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린피스는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남아 있는 예비 토지 개발에 우선순위를 두고 천연 녹지를 보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홍콩은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해 도시 인근의 자연공원을 개발하기 위한 공공협회를 열었습니다. 그린피스는 이를 막기 위해 지역의 단체들과 함께 자연공원 토론회를 조직하고 힘을 합쳤습니다. 시민들과 함께 학계, 연구원, 전직 공무원들도 목소리를 더해 공원 대신 이미 존재하는 재개발용 예비 토지를 사용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7월에는 천연 녹지 개발이 유일한 선택이라는 정부의 그릇된 신화를 폭로하기 위해 30명의 시민들을 초대해 타이모산 등반에 나섰습니다. 산 정상에서 시민들은 드넓은 재개발용 토지를 직접 눈

그린피스 동아시아 지부는 서울사무소를 비롯해 홍콩, 타이베이, 베이징사무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동아시아는 물론 전 지구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변화, 플라스틱 오염 등의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며, 동시에 각 지역별 환경 문제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해결책을 제시하여 보다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캠페인을 펼칩니다.

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연공원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기 위해 제작한 뮤직비디오는 수백만 건의 조회수를 기록했으며, 53,000명 이상의 시민들이 서명에 동참했습니다. 그 결과, 결국 홍콩 토지공급 태스크포스(TF)는 자연공원을 개발 순위에서 제외한 보고서를 발표했으며, 그린피스가 주장한 재개발용 부지를 사용할 필요성 역시 인정했습니다.

### 플라스틱 프리 마라톤

타이베이사무소는 글로벌 플라스틱 프리 캠페인의 일환으로 조사, 기업 및 정부 기관 로비, 시민참여 활동 등 다양한 방식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습니다. 지역의 환경단체들과 힘을 합쳐 가장 흔하고 가장 많은 일회용 플라스틱 쓰레기 4가지-빨대, 비닐봉지, 식품 용

기, 플라스틱 수저 사용을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중단하기 위한 로드맵을 만들었습니다.

2017년 한 해 동안 대만에서는 784회의 마라톤이 개최되었는데, 4백만 개 이상의 일회용 플라스틱 컵이 사용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린피스는 일회용 플라스틱 없는 '플라스틱 프리 마라톤' 개최를 위해 관련 부처 사람들을 만나 설득했고, 타이베이시가 동참을 결심했습니다. 타이베이시와 그린피스 동아시아 지부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2018년 타이베이 마라톤에서 일회용 플라스틱을 사용을 줄일 것을 약속했습니다.

2018년 12월 타이베이는 정기 마라톤 대회에서 생수병 대신 재사용 가능한 컵을 제공하고, 선수들이 책자나 증명서 등의 인쇄물을 받지 않는 옵션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쓰레기를 줄였습니다. 그 결과 3만 개의 생수병과 5만 개의 일회용 컵 사용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신베이시와 가오슝시 역시 플라스틱 줄이기에 동참했습니다. 타이베이사무소는 앞으로 대만의 모든 마라톤이 '플라스틱 프리' 마라톤이 될 수 있도록 캠페인을 꾸준히 펼칠 예정입니다.

### 지속가능한 삶

중국에서도 과잉소비문화의 문제점이 점점 더 많은 시민들의 관심을 얻고 있습니다. 베이징사무소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현대 사회의 소비문화를 돌아볼 수 있는 '장난감 교환 행사', '메이크썸뽕 프로젝트'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재활용, 수리, DIY 등을 통해 일회성 소비로는 얻을 수 없는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생각해보는 워크숍을 개최해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 대기오염

동아시아 지부는 대기오염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랜 캠페인의 결과, 작년 중국 정부가 초미세먼지 규제를 위해 장기 대기오염 방지 활동 계획을 발표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린피스는 도시의 대기 질 모니터링 연구를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으며, 중국 칭화대학교와 함께 대기오염이 중국 도시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는 시민 자원봉사자들이 직접 참여해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대기오염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높이고 사회적인 관심을 높여 중앙 및 지방 정부가 대기오염 문제 해결을 위해 보다 공격적인 정책을 시행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 지구 온난화와 빙하

나날이 심각해지는 지구 온난화로 인해 지구 곳곳의 빙하가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11월에는 중국 서부의 5개 빙하에서 실시된 조사 결과를 설명하는 보고서 <녹고 있는 지구: 빙하 퇴각과 중국의 빙하권에 미치는 영향>보고서를 발행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지구 온난화로 인해 빙하의 82%가 줄어들었으며, 지역의 수원에 영향을 미치고 강의 흐름을 증가시켰다고 지적합니다. 또한 기후위기가 심화될수록 폭우, 홍수, 빙하 붕괴 등 심각한 현상을 연쇄적으로 불러올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 후원자 행사



© Jung-geun Park / Greenpeace



© Jung-geun Park / Greenpeace



4월 22일, 지구의 날을 맞아 54명의 후원자님들과 서포터님들이 청계천에 모여 남극 보호를 요구하는 평화적 직접행동을 펼쳤습니다. 후원자님들은 남극과 플라스틱 오염 실태에 대해 캠페이너의 설명을 듣는 시간을 가진 후, 청계천 광장에서 진행된 펭귄의 날 행사를 즐겼습니다.

5월 20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기후행진 2018'이 진행됐습니다. 수많은 후원자님들과 자원봉사자, 활동가들이 함께 직접 만든 현수막을 들고 행진에 나섰고, 1.5°C 인간 글씨(human letter) 퍼포먼스에 동참해 주셨습니다.



© Jung Taekyong / Greenpeace



© Soojung Do / Greenpeace

지난 9월 15일, 서울 홍대 걷고싶은거리 일대에서 플라스틱 클린업 및 브랜드 오딧이 진행되었는데, 많은 후원자님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홍대 거리에 버려진 플라스틱 쓰레기를 수거하고, 어떤 브랜드의 제품들이 많았는지 조사하고 기록하는 작업이었습니다. 브레이크프리프롬플라스틱(플라스틱 탈출, BFFP) 프로젝트는 전 세계 42국에서 1만여 명의 시민들이 참여해 이루어졌으며, 모아진 자료를 바탕으로 보고서가 발표됐습니다.

그린피스가 중국에서 어떤 대기오염 저감 캠페인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서포터 및 후원자님들을 초대해, 지난 4월 말 중국 내 대기오염의 현황과 원인, 해결책, 그린피스 베이징사무소의 캠페인 활동을 소개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후원자님들께 다른 사무소의 활동을 상세히 소개하고, 우리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는 초미세먼지 문제를 상세히 짚어보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 Jaemin Byun / Greenpeace

## 후원자님이 보여주신 '시민의 힘'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그린피스 서울사무소는 보다 많은 후원자님과 만나고, 후원자님들이 직접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했습니다. 남극 보호를 위한 평화적 직접행동, 기후행진, 중국 기후에너지 캠페이너와의 만남 외에도 후원자님이 캠페인에 보다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플라스틱 오딧이나 불편의점 등 새로운 활동들을 시도했습니다. 즐거웠던 추억들을 사진으로 만나보세요!



© David Jaemin Byun / Greenpeace

© Seungchan Lee / Greenpeace

과잉소비문화 대신 직접 만들고, 교환하고, 고쳐보는 지속가능한 생활 방식을 퍼뜨리기 위해 탄생한 '불편의점'. 수많은 후원자님들께서 12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행사장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물물교환, 실크스크린, 대화용 랩 만들기 등 활동은 물론, 환경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만나 소통할 수 있는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 후원자 스토리

# 긍정적인 시선, 선한 영향력을 퍼뜨려요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스타를 응원하는 동시에 스타가 전하는 '선한 영향력'을 더 많은 곳에 퍼뜨리기 위해 후원을 선택합니다. 감사하게도 많은 팬 여러분들이 이 긍정적인 에너지를 지구를 위해 사용하기로 결심해 주셨고, 그린피스에 후원에 주셨습니다. 지구를 위한 팬덤 기부를 선택해 주신 후원자님들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아래 인터뷰는 여러 팬 분들의 인터뷰를 모아 재구성한 것입니다. 정성껏 답변해 주신 후원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 대단 배우 조우정 팬카페 Mark's Friends

2018년에 카페 10주년 기념 모임을 대신해서 의미 있는 곳에 후원하자고 의견이 모였어요. 조우정 배우가 평소에도 건강한 마음과 삶에 관심이 많고, '남극지련'이라는 영화를 찍으면서 남극보호 캠페인에도 동참하는 등 남극과의 인연이 있어 그린피스 후원을 결정하게 됐어요. 해양 동물들이 플라스틱 쓰레기 때문에 고통받는 모습이나 남태평양의 쓰레기 섬, 먹을 것이 없어 가축만 남은 북극곰의 모습을 볼 때면 인간의 편리함 때문에 고통받는 자연에 미안한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반대로, 인간이 노력한다면 다시 자연을 회복시킬 수도 있다는 뜻이기에 이런 캠페인들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비록 오랜 시간이 걸리다 해도요.

그린피스에 후원을 시작하면서, 많은 저를 포함한 회원분들이 생활습관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자연분해 되는 옥수수 빨대를 쓰는 분(강추!), 개인 포크를 가지고 다니면서 동료들에게 홍보하는 분, 쓰레기 배출 자체를 줄이려고 노력하는 분 등등. 이렇게 같이 후원을 하면서 환경보호에 일조한다는 생각에 자부심을 느끼고, 제 생활을 전반적으로 돌아보고 귀찮아하던 일들도 실천하게 되더라고요. 유난 땀다고 주변에서 뭐라고 할까봐 마음속으로 갈등했는데, 그린피스를 후원하면서 이제는 당당하게 지구를 생각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행동에 옮기게 되어 마음이 편하다는 분도 계세요.

아무래도 Mark's Friends의 이름으로 기부를 하기 때문에, 배우의 이름이 부끄럽지 않게 행동하려는 책임감이 생겼어요. 또, 조우정 배우에게도 우리의 선행이 긍정적인 활동의 원동력이 되었으면 해요.

"그린피스가 환경을 위해 많은 일을 해낼 수 있었던 것은 수많은 후원자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구와 환경에 관심을 갖고 행동하시는 모든 후원자님들을 응원합니다! 저희도 더욱 적극적으로 행동하며 빛을 발하는 '광합작용'으로 힘을 보태겠습니다!"

### ★우리 스타 자랑 한마디

"주변에 있는 사람, 자연, 동물 모든 것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이예요."

"사회를 보는 따뜻한 시선을 가진 사람! 책을 통해 삶의 깊이와 지혜를 나누고, 자연을 대하는 겸허한 모습 등 삶의 철학적 자세가 멋집니다."

"한결같음과 자연스러움이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태양을 보며 좋은 기운을 받기 위해 두 팔 활짝 벌려 온몸으로 흡수하는 '광합작용'을 하면서 자연이 주는 평화로움의 소중함을 느끼고 넘침보다는 부족함이 더 여유로움을 알게 되었죠. 누군가를 좋아하는 작은 마음으로 얻는 장점은 끝이 없다고 생각해요!"

\*기타 답변: 바닥쓰기 춤을 잘 춰요, 잘생긴 것은 물론 손가락이 길고 복숭아뼈도 예뻐요, 길고 깊은 눈매를 보면 빠지지 않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 배우 류준열 팬카페 올포류

후원을 하기 전부터도 환경 문제에는 관심을 가진 팬분들이 많았다고 생각해요. 그러던 중, 류준열 배우님이 레인보우 워리어호에 타고 직접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에 나서고, 지속적으로 환경보호를 위한 메시지를 전해주는 모습에 감동해서 그린피스 후원을 결정하게 됐어요. 배우님이 함께 참여한 캠페인이기도 하지만, 아무래도 '플라스틱 제로' 캠페인이 가장 인상 깊어요. 너무나 당연하게 사용하는 일회용품이 우리에게 편리함을 주지만, 동물들에게는 생명의 위협이 된다는 것이 충격적이었죠. 이제는 회원님들 대부분 텀블러를 사용하고, 팬카페에서 류준열 배우님 작품에 함께 작업하시는 스태프분들께 텀블러를 선물하기도 해요. 그린피스 후원을 시작하면서 환경 문제에 대해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전보다 적극적으로 실천에 나서게 됐어요. 생활 속 환경보호 팁이나 실천 방법을 지인들에게 권유하기도 하고, 그린피스 SNS에 좋은 소식이 올라올 때면 자부심과 뿌듯함도 느껴져요. 좋아하는 배우의 선한 영향력으로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이 모여 함께 후원하니 그 의미가 더 깊어진다고 생각해요. 배우님 또한 팬들이 환경 보호에 동참하는 모습에 애정과 뿌듯함이 생기실 것 같고, 팬카페 올포류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도 긍정적이 될 거라 생각해요. 이렇게 그린피스와 팬덤, 스타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팬덤 기부의 힘 아닐까요?

"어느 특정한 사람들만이 아닌, 전 세대가 환경보호에 동참하는 분위기와 실천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덜 쓰고 더 아끼는 삶, '나 하나쯤이야' 하지 않고 환경을 위해 실천하는 삶을 위해 노력한다면 많은 것이 달라질 거라 생각합니다."

### ★우리 스타 자랑 한마디

"우리 류준열 배우님은 배우로서의 멋진 연기를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배우님 스스로의 긍정적인 마인드와 성실한 태도, 선한 영향력으로 매번 다시 입덕하게 됩니다!"



## 박형식 한·중·일 연합 서포터즈

한중일 3개국 팬이 함께 하는 만큼, 국경을 초월해서 도움이 되는 후원을 하는 게 좋겠다고 의견이 모였어요. 특히 환경 보호는 누구도 예외 없이 모든 인류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항상 생각했기 때문에 그린피스를 후원 단체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흔히 환경 운동을 비롯한 시민운동은 일상생활과 괴리가 있거나 어렵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플라스틱 제로' 캠페인은 누구나 쉽게 실천하고 개선할 수 있어 누구나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환경 보호 운동이라 가장 인상 깊었어요. 저도 일회용 컵이나 빨대를 많이 사용하는 편이었는데, 이제는 되도록 다회용 컵을 쓰려고 하고 부득이 배달음식을 주문하는 경우엔 일회용 수저를 받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활 속의 작은 습관을 바꾸려고 노력하면서, 사소한 편의 때문에 환경을 해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후원하면서 새삼 깨달았습니다.

팬들이 이런 후원 활동을 접하면서 긍정적인 영향을 받고, 환경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작은 움직임이나 팬덤 내에서 퍼진다면 더욱 기쁠 것 같아요. 저희는 3개국의 팬들이 모인 만큼 보다 넓은 지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라 기대합니다. 평소 다이빙을 즐기고 바다를 사랑하는 아티스트이기 때문에,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해양을 오염시키는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는 활동을 함께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국내뿐 아니라 아시아 전역에 파급력을 가지고 있으니, 더 많은 팬들 사이에서 의미 있는 수준의 인식 변화가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요?

"처음에는 다소 가벼운(?) 마음으로 아티스트의 생일 기념 선행으로 그린피스 후원을 결정했는데, 환경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하게 된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분들께 저희처럼 작은 계기를 통해 환경에 대한 인식과 습관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 ★우리 스타 자랑 한마디

"일본에서 첫 공연을 했을 때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고 깨끗한 마음에 반했는데, 그 후에도 변함없는 긍정적이고 순수한 마음을 응원합니다."(일본)

"영화와 드라마에서 박형식 배우님의 순수한 매력에 끌려갔어요. 팬들에게 항상 예의 바르고 부드럽게 밝은 미소로 대해줘서 만날 때마다 좋은 에너지를 받았어요!"(중국)

"리얼리티 프로그램에서 긍정적인 자세로 매사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 팬이 되었습니다. 그 후로도 줄곧 팬들을 실망시키지 않고 본인의 자리에서 항상 열심히 하고 있어 더욱 응원하고 있습니다. 5월에는 첫 주연 영화 <배심원들>이 개봉하고, 6월 초에 헌병대에 입대하는데요. 영화에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성실하게 군 복무를 마칠 수 있도록 따뜻한 마음으로 응원해주세요!"



## 행동으로 변화를 만드는 사람들

그린피스의 캠페인은 여러 사람들의 참여와 행동으로 만들어집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변화에 동참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 우리 주변의 아름다움에 관심을 기울여주세요

#### 벽화 아티스트 ANO

작년 9월, 파괴적인 벌목과 화재로 인도네시아 우림이 처한 위기를 알리기 위해 전 세계 벽화 아티스트들이 '천국의 날개' 프로젝트에 동참했습니다. 각 도시 곳곳의 건물에 인도네시아 숲에서 살고 있는 아름다운 새들의 모습이 벽화로 다시 태어났는데, 4층 건물에 모두의 시선을 빼앗을 만큼 강력하고 거대한 벽화를 그려 준 대만의 벽화 아티스트 ANO 씨를 만났습니다.

저는 국내외 다양한 장소를 방문해 작업하는데, 현지 사람들의 생활과 문화를 느끼고 이를 주변 환경과 분위기에 녹여내는 것이 제 창작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천국의 날개' 프로젝트를 할 때는 신이 구(Xinyi District) 관계자분들의 협조로 구청 건물의 벽을 빌릴 수 있었습니다. 저는 4층짜리 건물의 모서리를 활용해서 불길에 휩싸인 나뭇가지에 앉아 있는 화려한 천국의 새를 입체적으로 표현했지요.

사실 이 새는 실제로 존재하는 특정 종의 새가 아니라, 수많은 사진 자료들을 통해 조사한 천국의 새들을 조합한 제 상상 속의 새입니다. 자료를 보며 새들이 어떻게 서고 머리를 움직이는지, 깃털들의 색은 어떤지 오랫동안 연구했습니다. 이 새는 매우 길고 흰색과 붉은 색이 섞인 아주 아름다운 꼬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저는 이 꼬리를 불꽃으로 표현했습니다. 매우 아름답지만, 인간들의 이익을 위한 활동 때문에 사라질 위기에 처한 숲과 동물들의 모습을 나타내고자 했습니다.

벽화 작업을 진행했던 8월에는 여름 내내 엄청난 폭염과 폭우가 오가는 극단적인 날씨가 계속됐습니다. 바로 그때, 앞으로는 이상 기후가 더욱 심각해지겠구나! 실감했어요. 이상 기후가 심해질수록 자외선은 더 강력해지고, 기온은 너무 높아지는 등 야외에서 이렇게 벽화를 그릴 기회도 줄어들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스마트폰을 보느라 실제로 주변의 것들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집 바로 앞에 건물 4층 높이의 벽화를 그린다 해도 눈치채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단순히 시선을 끄는 벽화가 아니라, 이 벽화가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는지 더 많은 이들에게 알릴 수 있는 작품을 완성하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의 것들에 좀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천천히, 더 많은 것들에 관심을 갖게 될 수록 우리의 환경이 어떻게 급격히 변해가는지, 또 그 원인은 무엇인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 청소년들의 힘으로 바꾸는 지구의 미래

#### 서울사무소의 최연소 활동가 신예나 학생

점점 더 많은 청소년들이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갖고 행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전 세계 학생들이 기후변화 문제에 대응할 것을 촉구하며 거리로 나선 '기후행동'이 대표적입니다. 서울사무소의 최연소 활동가 신예나 학생은 변화를 실천으로 옮기는, 진정한 활동가입니다.

#### 미니대담

지난 5월 제니퍼 모건 그린피스 국제본부 사무총장이 한국을 방문했는데, 일정 마지막 날인 5월 15일 예나 학생과 짧지만 뜻 깊은 만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나 학생이 가장 궁금했던 점 세 가지를 직접 질문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5살 중학생 신예나입니다. 취미는 저의 감정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이고, 그린피스의 캠페인에 참여하는 것에 큰 보람을 느껴요.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지 1년 정도 됐는데, 인스타그램에서 그린피스의 '불편의점' 행사 포스트를 보고 재미있어 보여서 엄마와 함께 참여하게 됐어요. 그때 플라스틱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설명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어요.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때 이후로는 집에서도 불필요한 플라스틱은 사용하지 않고 있고, 후원도 시작하게 되었어요. 캠페인에 직접 참여해보고 싶어서 자원봉사자도 신청하고 보트 트레이닝도 받았어요.

사실 제가 평일에 학원을 다니고 있는데, 평일에 그린피스 교육이나 행사에 참석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럴 때마다 학원을 주말로 미뤘어요. 엄마가 뭐라고 하실 때도 있지만 그래도 응원해 주세요. 친구들에게도 그린피스 캠페인 행사를 할 때마다 오라고 하는데, 오고 싶어도 다들 학원을 다니니까 오지 못할 때가 많아요. 아무래도 아직 중학생이라 환경을 위해 직접 행동하기에는 힘든 점이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앞으로 캠페이너 트레이닝도 받아보고 싶고, 더 많은 캠페인에 참여해보고 싶어요. 제가 바다에 특히 관심이 많아서 '오션디펜더'로 활동하고 있는데, 해양생태계 파괴 문제가 정말 심각한 만큼 캠페인이 꼭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린피스 스태프분들과 같이 밥 먹으러 가고 싶어요!

#### 그린피스 국제본부 사무총장의 역할이 무엇인가요?

캠페인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해 당사자와 협의할 때 그린피스를 공식 대변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또 지역 사무소가 추진하는 캠페인 진행 과정을 점검하고 담당 캠페이너를 격려하고 지원하고요. 특히 우리 후원자님들이 보내 주신 후원금이 제대로 쓰이는지 살펴봅니다.

#### 학생들이 환경운동에 참여하는 걸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적극적으로 환영해요! 어린 학생들이 앞으로 본인들이 살아가야 할 환경을 보호하자고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기성세대에게도 도덕적 압력으로 작용할 겁니다.

#### 모건 총장님처럼 되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저는 환경에 대해 별도로 공부한 적은 없지만, 여러 경로를 통해 경험을 쌓고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환경의 중요성을 깨닫게 됐습니다. 예나가 하고 있는 일을 지금처럼 열심히 하면 됩니다. 혹시 환경보호 운동에 참여하는 전 세계 학생들과 연대나 소통을 원한다면 언제든지 연락해 주세요!



소중한 후원금은 어떻게 사용되었을까요?

후원자님과 함께 만든 1년

크리스티나 산 비센테 동아시아 지부 부사무총장



2018년, 동아시아 지부는 매우 바쁘고 성공적인 한 해를 보냈습니다. 저희를 지지해 주시는 후원자님들이 보내주신 응원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서명에 동참해 주시고, 셀 수 없는 시간만큼 자원봉사에 참여해 주시고, 기후변화를 막아달라는 목소리를 더욱 높이고,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해 생활 방식을 바꾸고, 보다 강력한 환경 운동을 위해 후원에 동참해 주셨습니다.

더 나은 지구를 위해 여러분의 목소리를 더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개월에 걸친 캠페인 끝에, 지역의 패스트푸드 체인점들이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한 세계 최대의 팜유 거래기업인 월마가 파괴적인 산림 벌채를 끝낼 것을 선언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할 때 까지 계속해서 압박해 왔습니다. 또한, 남극 생물들의 소중한 먹이인 크릴을 지켜달라는 캠페인을 펼쳐 수많은 크릴 어업 회사들이 파괴적인 남획을 중단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전 세계 27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남극해 보호구역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성과들은 우리가 함께 만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변화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더 많은 사람들이 후원자님과 함께 지구를 위한 여정에 동참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수많은 후원자님들이 보내주시는 신뢰에 저는 감격스럽고, 동시에 아주 겸허한 기분이 듭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후원자님의 소중한 후원금이 어떻게 필요한 곳에 잘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후원자님이 지지해 주시기에, 더 건강한 지구, 더 아름답고 안전한 미래를 함께 만들 수 있습니다.

후원자님의 번치 않는 응원과 행동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 Christian Aslund / Greenpeace



29.25%  
기후에너지



11.91%  
글로벌 캠페인 지원



11.24%  
독성물질제거



3.46%  
건강한 먹거리



4.76%  
산림 보호



10.41%  
해양 보호



15.92%  
캠페인 언론 홍보 및 대중 참여



5.24%  
과학 연구 및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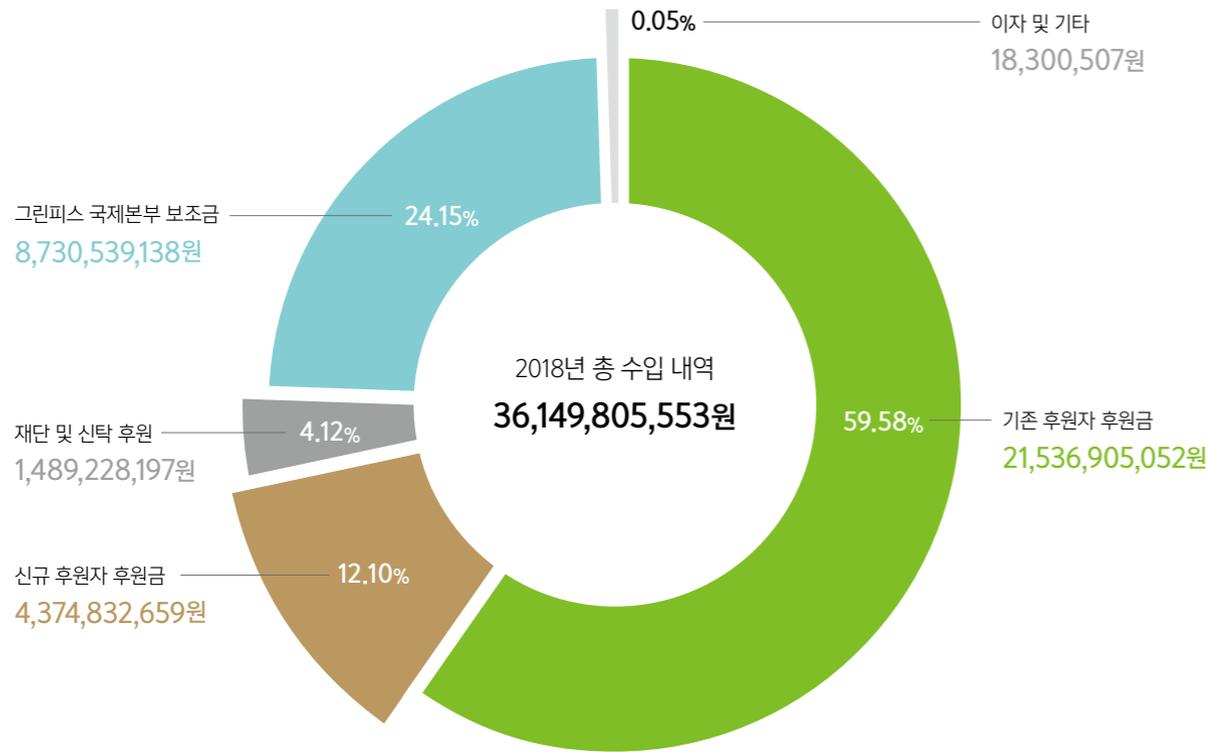
3.53%  
평화적 직접행동 및 자원봉사자 관리



4.29%  
지속가능한 금융 및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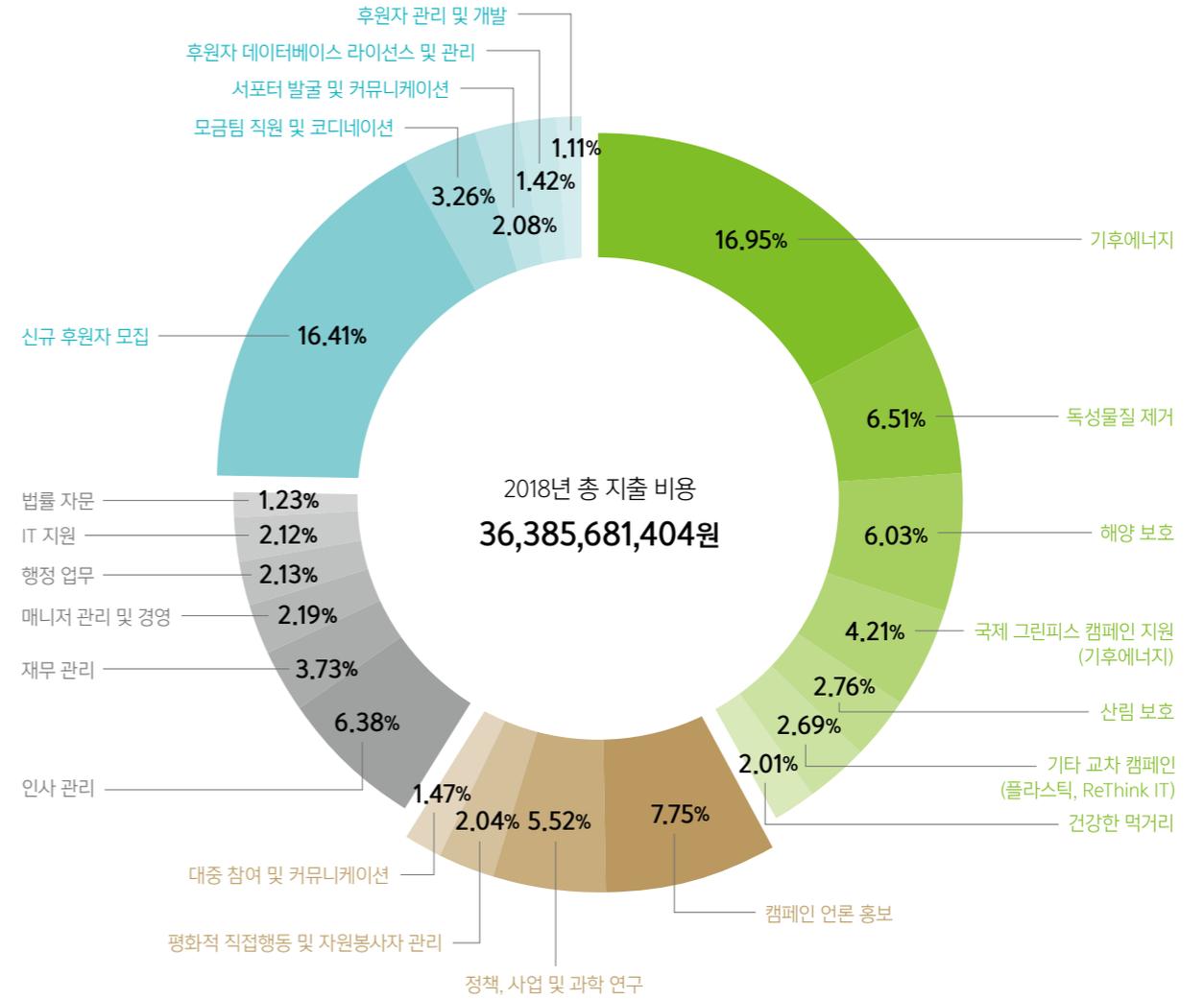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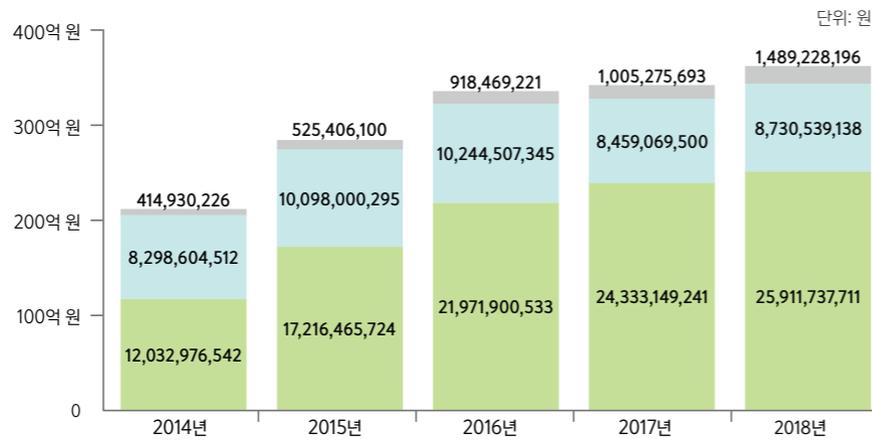
### 동아시아 지부 수입 및 지출 내역

그린피스는 기업과 정부의 후원 없이 오로지 개인과 독립 재단의 후원만을 받고 있습니다. 그린피스 동아시아 지부는 후원자님의 지속적인 후원 덕분에 매년 개인 후원금의 비율이 증가하고 국제본부의 재정 의존도가 감소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더욱 적극적으로 동아시아 지역 내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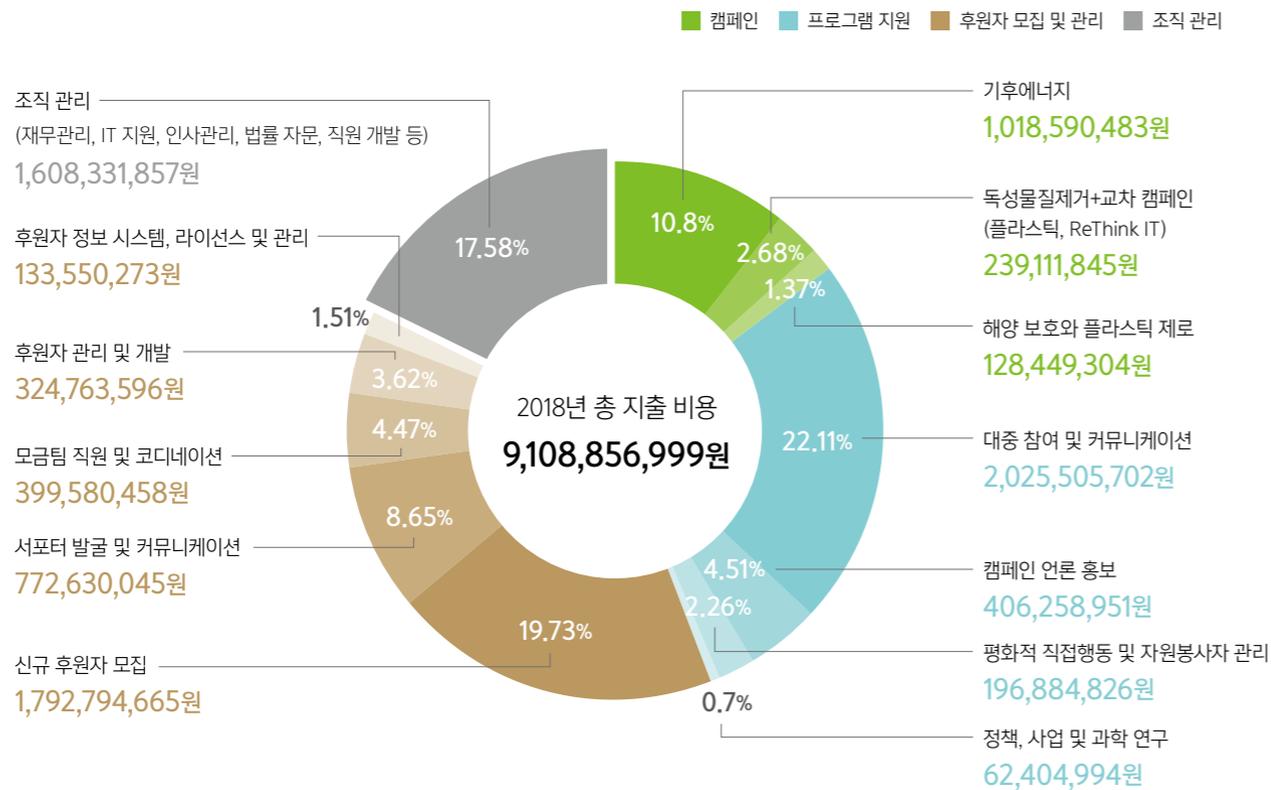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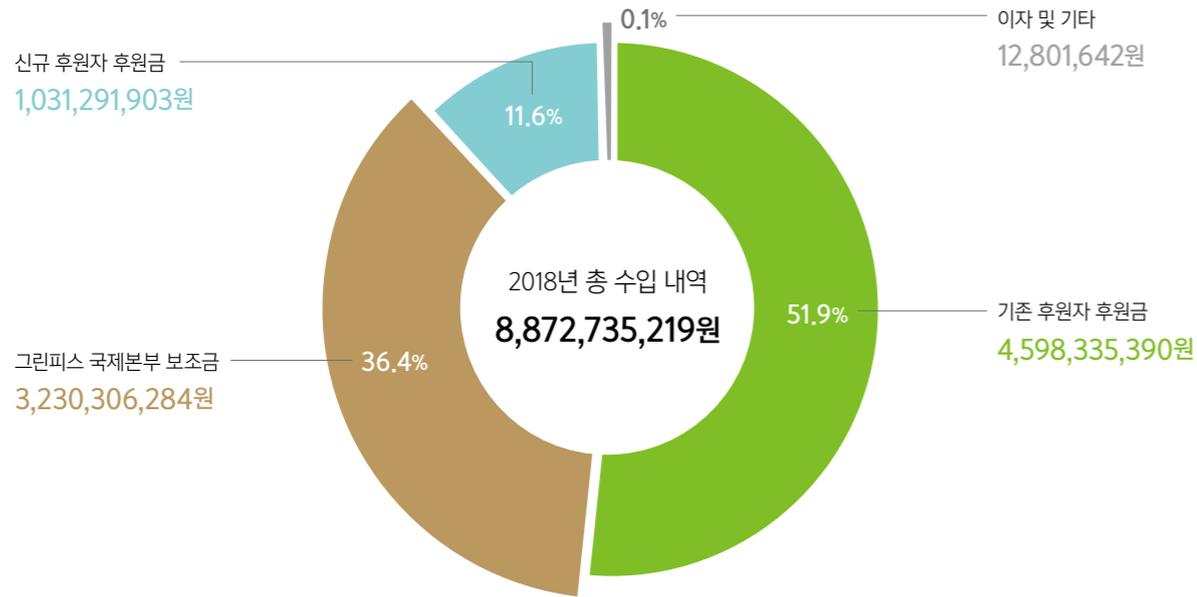
### 연도별 후원금 수입 내역 변화

■ 후원자 후원금  
■ 그린피스 국제본부 지원  
■ 재단 및 신탁 후원, 이자, 기타 수입



프로젝트	금액(원)	프로젝트 지원	금액(원)	조직 지원	금액(원)	모금 및 후원자 관리	금액(원)
국제 그린피스 캠페인 지원(기후에너지)	1,530,698,426	캠페인 언론 홍보	2,821,299,415	매니저 관리 및 경영	796,450,702	모금팀 직원 및 코디네이션	1,185,628,838
기타 교차 캠페인 (플라스틱, ReThink IT)	979,845,015	대중 참여 및 커뮤니케이션	535,675,183	법률 자문	448,852,364	신규 후원자 모집	5,971,461,805
기후에너지	6,166,820,003	평화적 직접행동 및 자원봉사자 관리	743,563,766	인사 관리	2,320,538,815	후원자 데이터베이스 라이선스 및 관리	515,913,589
독성물질 제거	2,369,147,173	정책, 사업 및 과학 연구	2,008,673,437	행정 업무	776,353,713	후원자 관리 및 개발	402,276,690
건강한 먹거리	729,924,042	<b>합계</b>	<b>6,109,211,801</b>	재무 관리	1,356,089,554	서포터 발굴 및 커뮤니케이션	757,741,050
산림 보호	1,003,723,538			IT 지원	770,383,531	<b>합계</b>	<b>8,833,021,972</b>
해양 보호	2,194,620,755			<b>합계</b>	<b>6,468,688,679</b>		
<b>합계</b>	<b>14,974,778,952</b>						

## 서울사무소 수입 및 지출 내역



## 프로젝트 세부 지출 비용



프로젝트	주요 포인트	금액(원)
석탄, 수자원과 대기오염	<p>동아시아 지부의 석탄과 수자원 프로젝트 팀은 글로벌 프로젝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중과 언론이 석탄 개발과 수자원의 관계, 또 석탄 사용 제한의 필요성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자료로 '글로벌 석탄과 수자원 스토리맵'을 만들었습니다. 이 스토리 맵에는 9개국에서 진행된 사례 연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전 세계 유역 및 하천 유역의 수자원 위기에 대한 연구 및 데이터 분석을 진행해 다른 사무소를 지원합니다.</p> <p>글로벌 대기오염 팀은 동아시아 지역의 대기질 및 화석연료 사용 동향을 체계적으로 추적해왔습니다. 대기질을 철저히 모니터링한 결과 작년 상반기에 석탄 수요 및 CO<sub>2</sub> 배출량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했으며, 여름에는 오존의 증가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p> <p>대만의 선아오 석탄발전사업 중단 캠페인을 지원하기 위해, 석탄화력발전소의 배출량과 건강 영향의 상관 관계를 분석해 발표했습니다.</p> <p>한국, 중국, 일본이 투자하는 해외 석탄발전 사업이 현지 환경 오염과 주민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을 조사, 발표해 대중의 인식과 제도적 변화를 촉구했습니다.</p> <p>여러 개별 건강 연구 결과를 사용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개발했으며, 내년에는 이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해외 석탄발전소들의 건강 영향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p>	467,593,080.35
UN 기후회담	<p>그린피스 국제 대표단은 비정부기구(NGO) 참관자 자격으로 UN 기후회담에 참가해 보다 야심찬 기후 목표를 세울 것을 설득하기 위해 주요 정책 입안자들과 양자 회담을 진행했습니다. 동아시아 지부 대표단은 UN 기후회담에서 국제 그린피스의 글로벌 기후 정책 로비를 담당하는 주요 소통 창구 역할을 했습니다.</p> <p>UN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ntergovernment Panel on Climate Change)가 석탄의 단계적 폐기를 위한 긴급한 조치를 촉구하는 중요 보고서를 발표하자 이에 맞춰 온라인 캠페인을 진행하고 투자자들에게 파리 기후협약을 제대로 이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p>	769,225,559.27
에너지 솔루션	<p>서울사무소는 자동차 업계가 화석연료에서 벗어나 재생가능에너지로의 전환을 목표로 하는 3년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2018년은 핵심 이해관계자 및 포커스 그룹 인터뷰 등 철저한 대중 분석 연구를 포함한 프로젝트 준비 단계였습니다. 또한 효과적이고 성공적인 캠페인 설계를 위한 소셜미디어 메시지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p> <p>전국 10개 국립대학교 대학생 연합인 '그린유스'와 함께 'RE제너레이션' 캠페인을 시작하고, 대학교들이 먼저 에너지 전환에 앞장서 재생가능에너지 캠퍼스로 변화할 것을 요구했습니다.</p> <p>우리의 세금이 해외 석탄 사업에 투자되는 것을 중단하라고 요구하는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2만 여 명의 시민들이 서명에 동참했으며 서울 광화문 광장과 수출입은행 본사 앞에서 평화적 직접행동을 진행했습니다.</p> <p>최근 2년 동안 560소송단과 함께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상대로 신고리 5, 6호기 건설 허가 취소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 발생 7년을 맞아 인근 지역 방사성 오염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담은 보고서 발간에 동참했습니다.</p>	1,383,052,520.70

 기후에너지

프로젝트	주요 포인트	금액(원)
<b>에너지 솔루션</b>	중국 허베이 지역의 재생가능에너지 사례 연구를 발표해 지방 정부의 공식 승인을 얻었습니다. 이는 향후 허베이 지역을 꾸준한 에너지 전환으로 이끄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개방형 혁신(오픈 이노베이션)' 컨셉을 에너지 업계에 소개하고, 재생가능에너지 육성 플랫폼인 파워랩을 통해 기업과 에너지 스타트업 사이의 가교를 구축했습니다.  광범위한 연구를 진행해 에너지 분야에 대한 언론 보도와 대중의 공론화가 부족함을 파악하고, 재생가능에너지의 기술 및 환경적 이익을 널리 알리기 위해 에너지 전문가와 오피니언 리더들로 구성된 네트워킹을 구축했으며, 이는 에너지 전환에 대한 의미있고 다양한 분야의 논의를 촉진시켰습니다.	414,959,699.08
<b>지속가능한 경제</b>	중국 정부의 녹색재정 개혁 및 혁신을 위한 시범 지역 중 하나를 철저히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우리는 2018년 녹색 에너지 투자에 대한 분기별 보고서를 투자자들에게 제공하고, 이를 통해 정책 입안자들에게 국제 녹색채권의 기준을 충족시킬 것을 요구했습니다.  녹색채권의 환경정보 공개 정책을 위해 중요한 정책 권고사항을 제공했습니다.	88,236,084.65
<b>해외 에너지 투자</b>	중국의 해외 석탄 투자를 둔화시키고 비용을 증가시켜 재생가능에너지를 보다 경쟁력 있는 해외 투자 옵션으로 만드는 15개월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칭화대학교의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중국의 해외 재생가능에너지 투자의 상호 이익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산시대학교와 협력해 인도네시아 석탄발전 투자의 위험성을 조사하여 2019년에 확정 보고서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중화환경보호연합회(ACEF)와 협력해 중국의 녹색 해외투자정책을 연구했습니다.	472,325,510.76
<b>중국 빙하</b>	중국 서부의 빙하 5곳에 대한 광범위한 현장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작년 여름에는 중국 최고의 빙하 전문 과학자들과 함께 지구 온난화가 녹아내리는 빙하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녹아내리는 빙하에 대한 다양한 사례 연구를 진행하여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전문 학술 회의에서 이 보고서에 대해 논의 했으며, 정부와 시민들에게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행동에 나설 것을 요청했습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해 빙하가 처한 위기를 알기 쉽게 대중에게 전하기 위해 인포그래픽과 강렬한 사진, 총 6개의 비디오 등 매력적인 비주얼을 사용한 멀티미디어 작품을 제작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전세계 언론의 관심을 얻었습니다.	885,216,938.97

<b>재생가능에너지</b>	타이베이사무소는 대만에서 기업들이 재생가능에너지를 보다 쉽게 조달할 수 있도록 재생가능에너지에 대한 지식 및 정보 교환 플랫폼을 구축했습니다. 또한 타이베이와 타이중에서 재생가능에너지 포럼을 개최했으며, 대만의 재생가능에너지 구매 방법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기업을 위한 전력구매계약(PPA, Power Purchase Agreement)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기업들이 재생가능에너지를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정책을 변경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또한, 전기를 대량으로 사용하는 대기업들이 최소한 일부라도 재생가능에너지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재생가능에너지 개발법 개정을 요구했습니다.  2018년 대만 탈원전 국민 투표를 앞두고 스탠퍼드대와 협력해 대만 재생가능에너지의 경제적, 기술적 잠재력을 보여주는 자료표를 발간했습니다. 또한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진정한 해결책이 될 재생가능에너지를 포함하여, 기후변화와 에너지 전환의 긴급성을 대중에게 전달하기 위해 IPCC 특별보고서를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선아오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반대하는 '신규 석탄은 이제 그만'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다른 비정부기구(NGO)와 환경전문가, 발전소 건설 예정 지역 주민들과 협력해 대중에 문제를 알리고 5차례의 기자회견과 다양한 오프라인 활동을 통해 발전소 사업에 대한 지역의 반대를 표현했습니다. 온라인 청원에서는 12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서명에 동참하며 타이베이사무소에서 가장 많은 서명을 받은 캠페인이 되었습니다.  대만 최고의 공중보건 및 대기오염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새로운 석탄화력발전소가 지역 주민들에게 미치는 잠재적 건강 영향을 평가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 발표 이후, 정부는 2018년 말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계획을 철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883,174,239.01
<b>중국 대기오염</b>	2018년 홍콩에서는 다양한 이상 기후 현상으로 지구 온난화에 대한 대중의 인지도가 높아졌으며, 재생가능에너지에 대한 적극적인 수용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홍콩 침례대학교 협력해 학교 옥상에서 태양광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조사를 진행했으며, 홍콩 정부는 학교에서 재생가능에너지 생산에 어떻게 협력할 수 있는지 그린피스의 조언을 요청했습니다.  유명 기후전문가인 람치우잉 씨와 함께 기후변화와 이상 기후의 영향을 설명하는 동영상 제작해 36만 건에 달하는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태풍 망쿳 이후 바닷가 마을이 입은 피해를 알리기 위해 후원자 행사를 진행했으며, 덕분에 태풍과 기후변화 사이의 연결 고리에 대한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칭화대학교,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PM2.5에 노출되는 실시간 데이터를 수집하여 대기오염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는 1년짜리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시민 및 과학자들로 구성된 자원봉사자 50명을 모집하는데 수천 건의 댓글과 메시지가 달리며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완성된 보고서는 2019년 중반에 발표 예정입니다.  정부 부처 및 전문가와 협력하여 데이터를 분석하고, 국가 정책에 필요한 조연과 정보를 적시에 제안하여 보다 공격적인 대기오염 저감 정책 추진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276,609,566.40
<b>지역 전체 캠페인 진행 및 관리, 코디네이션</b>		350,845,540.86

**총액 6,166,820,002.78**

 **해양 보호**

프로젝트	주요 포인트	금액(원)
해양 오염 연구	서울사무소는 인천대학교와 함께 전 세계 식용 소금에 포함된 미세 플라스틱의 실태와 지역의 플라스틱 오염의 관계에 대해 조사하고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연구는 환경과학 분야 저명 국제학술지인 '환경 과학과 기술'에 게재되었으며, 전 세계 언론에 1,000여 개의 기사가 소개되며 우리의 식탁으로 돌아오는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다시 한 번 알렸습니다.	30,161,238.71
남극 해양 보호	동아시아 지부는 지구상에서 가장 큰 해양보호구역 만들기 위한 글로벌 캠페인에 동참했습니다. 시민들의 청원 서명을 모집하고 다양한 오프라인 참여 행사를 진행했으며, 셀러브리티를 비롯해 주요 의사결정자, 과학자, 다른 환경단체와의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남극보호 캠페인은 전 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언론에 보도되어 성공적으로 인지도를 높이고 대중의 지지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린피스의 해양감시선이 3개월동안 남극바다로 떠나 특수한 해저 생태계를 기록했습니다.  세계 최대의 원양어업 회사 5곳이 남극해의 취약 지역에서 크릴낚시를 중단한다고 약속했습니다.	1,408,846,098.82
불법&남획	타이베이사무소는 어업계의 불법 어업 및 대만 선박의 노예 선원 인권 문제를 폭로했습니다. '고통의 바다' 보고서를 통해 대만의 원양어선에서 벌어지는 인권침해의 증거를 새롭게 제시했으며, 거대 해산물 무역업체인 FCF는 보고서 발표 후 그린피스와 지속 가능한 어업 정책을 논의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대만 정부에 원양어업법 실행 일정을 약속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정부에 투명한 정보 공개를 요구했습니다.	351,757,522.85
지역 바다	베이징사무소는 어업으로 인한 사망률이 전세계 상어종의 가장 큰 위협이 되고 있는 현실을 데이터 수집과 사례 연구를 통해 조사하고, 중국의 어업 활동이 중국 국내는 물론 먼 바다에서 살고 있는 상어 종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연구했습니다. 또한 전 세계의 어업 관리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상어의 소비실태를 조사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향후 2년 안에 발간될 예정입니다.  중국 어업계가 지속가능하게 변화할 수 있도록 과학자, 정책 입안자들과 중요한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365,226,503.89
지역 전체 캠페인 진행 및 관리, 코디네이션		38,629,391.07

**총액 2,194,620,755.34**

 **국제 그린피스 활동 지원**

프로젝트	주요 포인트	금액(원)
글로벌 탈석탄 프로젝트	다음과 같은 그린피스 동남아시아 지부 프로젝트를 지원했습니다.  <b>기후 정의와 책임</b> -정부와 기업이 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도록 시스템의 변화를 촉진하고, 국제적인 압력을 가하기 위해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 사회 주민들의 상세한 증언을 공개하고, 두 차례의 필리핀 인권위원회 공청회에서 기후변화가 미치는 영향을 과학적으로 설명했습니다.  <b>레인보우 워리어호 투어</b> -레인보우 워리어호가 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을 방문해 기후와 인권, 기타 사회 문제와의 연관성을 강조하는 한편 단계적인 탈석탄과 재생가능에너지 전환의 필요성을 홍보하기 위해 언론 인터뷰, 시민 참여 행사, 지역사회와의 네트워크 형성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1,530,698,426.39

**총액 1,530,698,426.39**

 **산림 보호**

프로젝트	주요 포인트	금액(원)
콩코 분지 열대우림	아프리카사무소와 협력하여 콩고 분지 목재의 가공 절차 및 시장 판매를 포함한 공급 체인의 관리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관련 정부 부처와 전문가를 만나 더욱 강력한 법규 도입을 추진하여 불법 벌채를 막고, 불법 목재가 중국으로 수입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도록 설득했습니다.	30,025,106.43
인도네시아 우림	팜유 업계의 무분별한 산림 파괴를 종식시키기 위해, 세계 최대의 팜유 거래업체인 월마에게 모든 팜유 공급업자를 감시하고 관리하기 위한 상세한 실행 계획을 요구하는 글로벌 캠페인에 동참했습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참여 이벤트를 개최하여 팜유 업계와 산림 파괴의 실태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높였습니다.	108,102,140.47
중국 천연림	중국의 숲과 습지를 보호하고, 생물다양성을 보호하기 위해 야생동물 서식지와 국립공원의 관리 개선을 요구하는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습지 보호의 중요성을 대중에게 알리는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지역의 단체와 협력하여 윈난성과 안후이성 국립공원의 나무들의 탄소 저장 작용을 분석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내년에는 천연림 보호를 위한 보다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할 것입니다.  지역 파트너와 협력해 윈난성 지역의 1,100년 된 고목들을 발굴하고 기록하는 다크멘터리를 제작해, 이 지역이 중국 남서부에서 가장 중요한 생물다양성 지역임을 대중에게 알리고 이를 보호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815,506,737.38
지역 전체 캠페인 진행 및 관리, 코디네이션		50,089,553.59

**총액 1,003,723,537.87**

 **독성물질 제거**

프로젝트	주요 포인트	금액(원)
<b>유해 화학물질 관리</b>	<p>베이징사무소는 관리 및 토양 오염 문제 해결을 위해 정책 의사 결정자 및 전문가 사이에 관계를 구축하여 유해 화학물질이 우리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대중의 인식을 높였습니다.</p> <p>중국에서 가장 토양 오염이 심각한 후난성 화위안현의 실태를 조사하고, 토양 오염이 현지의 생태와 식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평가하고 이를 위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캠페인을 펼쳤습니다.</p>	97,030,375.28
<b>과잉소비</b>	<p>베이징사무소는 과잉소비를 막기 위한 글로벌 캠페인에 동참하여, 지역 NGO 11곳과 함께 다양한 온라인, 오프라인 시민 참여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온라인 챌린지 이벤트에는 100명이 넘는 인원이 참가했습니다.</p> <p>인플루언서들과 협력해 지속가능한 라이프스타일을 대중들에게 알렸습니다. 또한 부모들이 새 장난감을 사는 대신 다른 사람들과 서로 교환할 수 있는 오프라인 '장난감 교환' 행사를 개최해 200여 명의 참가자를 모았습니다.</p> <p>홍콩과 타이베이사무소는 '플라스틱 프리 생활 체험'이라는 주제로 2일간의 연말 이벤트를 개최해 시민들과 후원자들의 참여를 이끌어냈습니다. 행사에는 DIY, 게임, 전시 등을 통해 플라스틱 대체품 및 업사이클 방법을 소개했습니다.</p> <p>2017년부터 진행해온 캠페인을 더욱 발전시켜, 우리의 일회용 문화가 지속불가능한 소비로 이어지고 있음을 강조하고 지속가능한 생활 양식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교육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p>	81,767,341.74
<b>ReThink IT</b>	<p>서울사무소는 100% 재생가능에너지 전환을 약속한 삼성이 이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8월에 구체적 이행 방안을 담은 보고서 &lt;삼성전자의 새로운 도전과 기회: 100% 재생가능에너지 달성 로드맵&gt;을 발표하고 삼성에 전달했습니다.</p> <p>전 세계 시민들의 캠페인 동참을 위해 다양한 영상을 제작하고 독립 에너지 전문가와 협업을 진행했으며, 소셜 미디어 이벤트를 진행했습니다.</p> <p>한국은 물론 미국, 영국, 독일, 대만 등 세계 각국에서 평화적 직접행동을 진행한 결과, 삼성전자는 지난 6월 미국, 유럽, 중국에서 제조공장을 포함한 전 사업장의 전력을 2020년까지 100% 재생가능에너지로 충당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p>	92,151,629.04
<b>수질오염</b>	<p>베이징사무소는 중국의 수질오염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의 단체와 협력하여 오염지 재개발에 초점을 맞춘 보고서 2개를 준비했습니다.</p> <p>중국의 산업폐수처리장을 조사하고 2019년 발표될 정책 제안 작업을 진행했습니다.</p> <p>수질오염 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하는 학계 및 지역의 비정부단체들과 함께 중요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토양과 수질오염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p>	143,018,546.40
<b>플라스틱 프리</b>	<p>2018년 한 해 동안 '플라스틱 프리' 캠페인을 통해 플라스틱 없는 삶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높이고, 플라스틱 대안품에 대한 유용한 팁을 제공하는 웹사이트를 제작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습니다.</p> <p>지역의 비영리단체, 지역사회 시민 및 주요 인플루언서들과 협력하여 플라스틱 없는 생활 방식을 홍보했습니다.</p>	125,766,176.93

<b>플라스틱 프리</b>	<p>2018년, 필리핀에 한국산 플라스틱 쓰레기가 불법으로 수출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서울사무소는 필리핀 사무소와 힘을 합쳐 방치되어 있는 불법 플라스틱 쓰레기 현장을 촬영해 미디어에 공개하고, 플라스틱 쓰레기 반환 및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현지 시민들의 목소리를 전했습니다. 이 사진과 기사는 대중의 커다란 관심을 받았으며, 한국 정부에 기업의 일회용 플라스틱 소비를 보다 강력하게 규제할 것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졌습니다. 플라스틱 쓰레기는 결국 2019년 초 한국으로 반환되었으며, 그린피스는 실질적인 플라스틱 소비량 감축을 위해 일회용 플라스틱 소비-유통-폐기량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정비하고 이를 토대로 감축 목표 설정 및 로드맵 구축 등 실효성 있는 이행 방안을 시급히 마련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는 캠페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다양한 생활 팁을 공유하고, 후원자 및 시민들과 소통하기 위해 '불편의점'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100여 명의 시민들이 다회용 랩 만들기, 실크스크린, 물물교환 등 다양한 이벤트에 동참해주셨습니다.</p> <p>베이징사무소는 중국의 대형 온라인 음식 배달 플랫폼 및 디자이너들과 함께 여러 워크숍을 조직하여 플라스틱 없는 음식 배달 시스템을 구축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p> <p>일회용 플라스틱 포장의 수명을 알아보기 위해, 지역 단체와 함께 온라인 음식 배달에서 배출된 일회용 플라스틱 쓰레기가 어디로 가는지 추적하는 현장 체험을 진행했습니다. 다렌 해양대학과 협력해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p> <p>홍콩사무소는 플라스틱 없는 미래를 위한 공동체의 인식을 높이고, 대기업과 홍콩 정부가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금지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압박을 가했습니다.</p> <p>환경감시선 레인보우 워리어호와 함께 20곳의 연안에서 해수면의 표본을 1년간 채취하는 연구를 진행해 언론에 공개했습니다.</p> <p>홍콩 굴지의 패스트푸드 업체에 '플라스틱 프리' 정책을 선택할 것을 촉구하며 3만 3천 명 이상의 시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했습니다.</p> <p>70명 이상의 자원봉사자들이 식당을 방문하여 포장 주문을 할 때 일회용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설득했으며, 약 300여 곳의 식당들이 일회용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p> <p>타이베이사무소는 플라스틱 프리 마라톤 캠페인을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대만에서 가장 인기있는 스포츠 행사에서 무분별하게 일회용 플라스틱을 사용하고 버리는 문화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주최자들이 일회용 플라스틱 없는 행사를 주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린피스의 캠페인으로 타이베이 시장은 대만 최대 규모의 마라톤 대회인 타이베이시 마라톤 행사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대폭 줄일 것을 약속하는 협정에 서명했습니다. 신베이시와 카오슝시는 마라톤 행사에서 재사용이 가능한 컵을 제공하는 등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의 사용을 줄였습니다.</p> <p>대만의 다른 NGO들과 협력해 '해양 쓰레기'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대만의 플라스틱 오염 핫스팟을 찾는 것을 목표로 해변을 철저히 조사하고, 연간 총 플라스틱 폐기물 양과 그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플라스틱 쓰레기의 종류를 계산하고 조사했습니다. 이 결과 일부를 언론과 정부에 공개했으며, 현재 대만의 일회용 플라스틱 규제안을 더욱 강화할 것을 촉구했습니다.</p> <p>지속 가능한 생활방식을 홍보하는 '그린데이' 이벤트를 개최했습니다. 이 행사는 두 도시에서 11일 동안 개최되었으며, VR부스, 사진 갤러리, DIY 워크숍 등 재미있고 창의적인 다양한 활동을 통해 일회용 플라스틱의 문제점을 알렸습니다. 이날 행사로 2,300여 명의 시민들이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사용을 줄이겠다는 약속에 동참했습니다.</p> <p>84개 이상의 학교가 교내 행사에서 일회용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약속에 동참했습니다.</p>	167,172,202.92
		336,793,254.98
		776,921,293.42
		435,612,869.38
<b>지역 전체 캠페인 진행 및 관리, 코디네이션</b>		91,402,714.58

**총액 2,369,147,173.37**

 **교차 캠페인**

프로젝트	주요 포인트	금액(원)
주요 국제 환경 회의 참석 및 자문	UN산업개발기구를 포함한 다양한 국제 포럼과 세미나에 참석하여 중국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85,130,099.09
레인보우 워리어호 투어	2017년에 이어 홍콩교육대학 전문가들과 팀을 구성해 홍콩 주변 해역의 해양 플라스틱 오염에 대한 종합 과학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2019년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75,453,425.19
Rethink IT	타이베이사무소는 한정된 자원을 고갈시키고 지구를 오염시키는 기존의 방법 대신, 깨끗한 에너지를 사용하고 사용한 자원을 추출해 재활용, 재사용하는 순환 경제 시스템의 환경 및 경제적 이점을 홍보했습니다. 스마트폰 브랜드의 반쯤 정책 및 실례를 조사해 순위를 매긴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한국, 독일, 영국, 미국과 함께 삼성의 100% 재생가능에너지 전환을 요구하는 평화적 직접행동에 동참했습니다.	132,438,353.43
	베이징사무소는 그린피스의 글로벌 캠페인에 동참하여 스마트폰 업계에 재생가능에너지로 전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스마트폰 자원 재활용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비디오를 제작했습니다.	32,770,334.39
도시개발	홍콩사무소는 총 5만 3천여 명의 시민들의 서명을 홍콩 정부에 전달하고 자연공원을 보호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26개의 지역 환경 단체와 힘을 합쳐 도시의 녹지를 보호하고 재개발용 토지를 개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자연공원의 아름다움을 대중에게 보여주기 위한 평화적 직접행동을 펼쳤으며, 200만 조화수를 돌파한 뮤직비디오도 제작했습니다.	480,548,126.77
	<b>지역 전체 캠페인 진행 및 관리, 코디네이션</b>	173,504,675.67
		<b>총액 979,845,014.54</b>

 **건강한 먹거리**

프로젝트	주요 포인트	금액(원)
지속가능한 농업	베이징사무소는 '친환경 농업 플랫폼 장학금'을 통해 차세대 생태 농민들을 지원하는 한편, 새롭게 농업에 도전하는 농민들을 위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구축해 마케팅, 식품 교육 등 생태농업기법을 공유했습니다. 육류 소비를 줄이기 위해 대학의 영양 및 농업 전문가들과 협업하여 종합적인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프로젝트 팀은 포럼에 참석하여 전 세계에서 유사한 캠페인을 진행하는 단체들을 만나 정보와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659,163,830.93
	<b>지역 전체 캠페인 진행 및 관리, 코디네이션</b>	70,760,211.44
		<b>총액 729,924,042.37</b>

 **프로젝트 지원 비용**

프로젝트	주요 포인트	금액(원)
캠페인 미디어 홍보	동아시아 지부 34개 캠페인 프로젝트를 30명의 커뮤니케이션 프로젝트 스태프가 진행합니다. 시민의 의식과 영향을 극대화하기 위해, 미디어를 통해 캠페인 프로젝트를 공동 지원합니다.(연구 작업 기자회견 개최, 보도자료와 각종 정보를 모든 사무실의 지역 및 국제 미디어에 전달 등) 지부 내 4개국의 국내외 캠페인 활동 및 환경 관련 기사를 매일 모니터링하고, 외부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개선하기 위한 키워드, 기사 및 환경 뉴스의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1,408,555,265.14
미디어 및 온·오프라인 커뮤니케이션	브랜드 구축 및 대중 인식 조사	
	캠페인 영향력 확대를 위해 분석, 커뮤니케이션, 멀티미디어 작업 및 소셜 미디어 플랫폼 활용 혁신 및 향상을 위해 지원합니다. 그린피스의 환경 캠페인 경험을 공유하고, 지역 파트너 단체나 개인이 환경 문제를 모니터링하고 제보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최신 경향을 분석해 그린피스의 활동과 핵심 가치를 전하는 비디오, 브로슈어, 책자 등을 제작합니다. 학교, 대학교 및 인플루언서들과 협력해 친환경적인 생활 방식을 홍보합니다.	1,096,695,292.00
	미디어 분석	
	환경과 관련된 언론 보도, 소셜 미디어 포스트들의 양적인 면과 질적인 면 모두 분석해 시민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환경 이슈를 파악하고, 그린피스의 캠페인을 발전시킵니다. 또한 관련된 소셜미디어 데이터를 관리합니다.	219,745,331.99

 프로젝트 지원 비용

프로젝트	주요 포인트	금액(원)	
미디어 및 온·오프라인 커뮤니케이션	멀티미디어	환경파괴 현장을 찾아가 기록하고, 캠페인을 대중들에게 알리기 위해 사진, 일러스트, 비디오투를 제작합니다. 미디어에 그린피스의 멀티미디어 자료를 배포하는 라이브러리를 운영하며, 온라인 캠페인을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합니다.	69,412,197.37
	온라인 시민 참여	이메일, 소셜미디어, 온라인 홈페이지, 모바일 등 다양한 디지털 채널을 통해 캠페인을 홍보하고 대중과 소통합니다.	26,891,328.55
	후원자 매거진	후원자 소식지인 임팩트 리포트와 연차보고서를 발행합니다.	535,675,182.92
평화적 직접행동 및 자원봉사자 관리	지역 평화적 직접행동 및 오프라인 시민 참여	캠페인을 위한 평화적 직접행동 전반, 트레이닝 관리, 오프라인 시민 참여 활동을 지원합니다.	404,976,125.16
	트레이닝 및 장비	캠페인을 위한 평화적 직접행동(NVDA) 및 트레이닝을 진행합니다.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고 관리합니다.	216,352,085.15
	창고	장비 보관 및 행사용 창고를 운영합니다.(대여비, 관리, 보수)	122,235,555.36
정책, 사업 및 과학 연구	지역 조사 및 연구	지부 내 조사 및 연구를 진행하고 관리합니다. 다양한 환경 문제를 알리고, 환경오염 근절을 위한 실질적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긴급 환경재해를 감시하고 현장에 인력을 파견해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 기록합니다.	127,126,895.46
	연구 역량 개발	장소 스카우팅, 샘플링, 온라인 조사 등 정규 트레이닝을 진행합니다. 장비 관리, 모범 사례연구, 위험 평가 및 보안 등의 워크숍을 진행합니다.	554,145,204.38
	고급 인지과학 적용	환경 문제의 근본적 원인과 시민들의 사고방식을 변화시켜 사회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고급 인지과학(신경 과학, 심리학, 언어학 등)을 캠페인에 적용할 수 있도록 그린피스 전체에 정보를 제공합니다.	423,515,348.99
정책 및 외부 업무	정책 및 외부 업무	그린피스 캠페인과 관련해 정부 및 UN과 연락하고 자문을 제공합니다. 정부 주요 인사와 조사기관 및 다른 NGO와 유대 관계를 유지하며 다양한 환경 영향 평가 보고서를 모니터링하고, 관련 세미나에 참여합니다.	114,798,646.02
	지속가능한 금융 및 사업	비즈니스 관리자를 비롯해 금융전문가들이 지속가능한 금융 캠페이너로 활동합니다. 환경을 위한 기업의 행동 변화를 만들기 위해 전략을 개발하고 실행하며, 전문적 자문을 제공합니다. 공개 비즈니스 포럼 등 투자 및 금융과 관련된 커뮤니티에 참여합니다.	789,087,342.07

총액 6,109,211,800.56

후원자님과의 약속

- 약속1 서약** 우리의 사명은 평화적 행동을 통해 지구의 미래를 위한 긍정적인 변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 약속2 기득권으로부터 독립성 유지** 우리는 정치적·재정적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기업이나 정부로부터 후원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깨끗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개인(후원자님)의 후원만으로 운영됩니다.
- 약속3 융통성** 기후변화를 막는 것이 우리의 최우선 과제이지만, 모든 환경 문제가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숲, 바다를 보호하고 독성물질 오염을 없애기 위해 전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현지의 상황에 맞게 캠페인을 조정합니다.
- 약속4 효과적인 캠페인** 그린피스의 IDEAL(조사, 기록, 폭로, 액션, 로비) 활동은 환경 캠페인의 원동력입니다.
- 약속5 대중에게 동기 부여** 개인과 집단의 힘은 기업과 정부가 자연과 환경에 옳은 일을 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무기입니다. 우리는 시민들에게 자신들의 목소리를 더하고, 캠페인 지원 및 후원을 통해 캠페인에 동참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 약속6 책임** 우리는 INGO 책임 현장과 그 윤리적 기금 모금 원칙을 준수합니다. 우리는 후원자, 대중 및 규제 기관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 약속7 투명성** 매년 독립적인 회계감사관의 감사를 받은 연차보고서에 재무제표를 게재하고 업무 및 재무 관리에 대한 전체적인 개요를 공개함으로써 기부금 사용 내역과 캠페인 성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약속8 우수성** 그린피스를 대표하는 모든 거리모금가는 신규 후원자 모집 및 환경 보호 캠페인 홍보를 위한 훈련을 받고 면밀한 모니터링을 받습니다. 우리에게서 명확한 규정과 모금 원칙이 있습니다. 우리는 꾸준히 스스로를 돌아보고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약속9 개인 정보 보호** 우리는 후원자님의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우리의 개인정보보호정책에 따라 그린피스 캠페인 정보 공유, 각종 이벤트 초대, 모금, 후원금 관리에 필요한 절차 처리 등 특정 작업을 수행하는 직원만이 후원자님의 개인 정보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 약속10 참여를 통한 양방향 관계 유지** 후원자 행사, 캠페인 소개, 후원자 매거진, 이메일 뉴스레터, 전화 등을 통해 후원자님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자 합니다.

